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12

서울보육교사회

차 례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TEL 02-275-85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보육교사들의
노력으로 더 크게 자나라는
희망하나, 바로 서울지부의
창립을 지켜봅니다.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1998년 12월호(통권 66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
사회/펴낸이 정희연/묵
은이 박정애, 이선주,
김희정/펴낸날 1998년
12월 1일

우리네

아이들

'98년 12월호

통권 66호

권두언	4
특집1	6
특집2	10
실직가정자녀 겨울나기	16
현장교육1	20
현장교육2	22
현장교육3	24
현장소식	31
취재기	32
박물관 교육	36
어린이와 건강	48
좋은 그림책 소개	54
공연관람기	56
육아일기	58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59
사이버정보망	60
세상읽기	62
목소리	64
알림	65
보육계풍향	66
소식과 소식	69
편집부에서	72

전문인으로서의 어린이집 교사	유애열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정의연
서울보육교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오윤정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사업을 벌이며	최순옥
기적 - 생활 속에 녹아든 음악의 힘	서지혜
비디오그림책에 대한 의견	서은익
“생태교실-물레”의 연수를 받은 후	부산
수원의 그림책감화를 마치고 나서	이주영
월간포망에 박수경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편집부
박물관 활용교육의 입문	이혜영
소아비만에 대하여	고시환
고탈라	오윤정
발도르프교육의 꽃인 오이뤼트미 공연을 보고	임미란
유빈이가 부쩍 자랐어요	나은미
썩썩이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썩썩이어린이집
열/사/람/의/ 한/결/음/을 이/어/추/는 진보네트워크	편집부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의 소원이 욕심이 될...	위양자
다시 시작하며	이선미
새로운 시각의 성교육 When I'm Grown 프로그램 워크샵	편집부
	편집부
	편집부
	편집부

전문인으로서의 어린이집 교사

유애열 · 삼성복지재단 이사, 서울시교육위원

추운 겨울날 아침 채 잠이 깨지 않은 아이를 담요에 감싸 안은 채 젊은 엄마가 종종 걸음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간다. 선생님은 아이가 깨새라 조심스럽게 아이를 전내 받아 따뜻한 방에 조심스레 눕힌다. 이러한 장면은 어느 어린이집에서나 아침마다 흔히 일어나는 일상사이다. 이 어린이집이 직장 보육시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담요에 싸여 어린이집에 들어온 아이가 잠이 깨고 하나, 둘 아이들이 물려오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의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영아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기저귀 갈고, 우유먹이고, 옷갈아 입히고, 잠재우고, 먹다가 흘리면 또 옷갈아 입히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자신이 교사인지 아이를 잠시 맡아 돌보아주는 탁아모인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러한 현장의 특성 때문에 교사 역할의 유형이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한가지 유형은 그저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는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유형은 오전에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 교육시간을 가진 후 유아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그 이후 시간을 다시 교육의 연장으로 이끌고 가 교사, 유아 모두에게 힘든 일과를 지내게 하는 유형이다. 미흡한 것도 지나친 것도 유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적절한 역할은 무엇일까?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서 유아와 지내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첫째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유아는 발달적 변화가 크고 개인차가 크다.

어떤 영아는 어린이집에 오자마자 적응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영아는 하루종일 울어 교사를 힘들게 한다.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라면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고 영아를 도와주어야 한다. 낯가림을 시작한 영아라면 갑작스런 변화에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영·유아를 기질에 따라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유아의 기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순한 아이의 경우는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가지고 있고, 항상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며, 적응이 빠르고, 민감성이 낮으므로 교사가 다루기가 쉬운 편이다. 반면 까다로운 영·유아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행동이 불규칙하고, 감정표현의 강도가 강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활동성이 크므로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느린 아이는 새로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며 감정 표현의 정도가 약하다. 이런 영·유아에게는 반복적으로 상황을 접하게 해주고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좁은 공간, 많은 아이들, 부족한 교구, 프로그램의 흡수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자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를 믿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며 지내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를 기꺼이 맡겨 주신 부모들에게 실력 있는 교사, 책임 있는 교사, 아름다운 교사로 남을 것이다.

둘째,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아반 교사인지 유아반 교사인지에 따라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된다.

즉, 영아반 교사라면 신뢰감을 형성시켜주는 역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돕는 역할, 놀이 참여를 돕는 역할의 순서로 역할의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유아반 교사의 경우는 상호작용자(놀이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역할, 온화하고 수용적인 교사의 역할 순으로 역할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의 가족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면 영유아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형제관계는 어떤지, 병력은 없는지 영·유아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것을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있으면 지나치게 민감해지거나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선생님의 손을 놓치기만 해도 우는 아이, 친구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아이, 위험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아이, 간식이나 점심을 먹을 때 흘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 가운데 있다면 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거나 성급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때 교사는 유아들로부터 한발씩 물러나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시킨 후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의 차이를 알아 놀이실의 환경구성을 하는 일부터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는 일, 놀이실에서 연령에 맞추어 상호작용 하는 일 등 교육 뿐만 아니라 영양, 안전, 건강과 같은 모든 면까지 교사들의 역할은 무한하다. 좁은 공간, 많은 아이들, 부족한 교구, 프로그램의 흡수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자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를 믿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며 지내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를 기꺼이 맡겨 주신 부모들에게 실력 있는 교사, 책임 있는 교사, 아름다운 교사로 남을 것이다.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갖는 의미와 내용

정희연 · 본회 회장

최 근 보육사업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육의 질적수준의 제고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침이나 현장에서의 요구면에서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과연 질적수준의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질적제고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아니, 그전에 그간의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의 개선을 통해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8년여의 보육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올해 실시하였다. 이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1월 영유아보육학회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평가를 통한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이 시점은 따라서 우리 보육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중기적 보육정책의 기초가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사업의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가급적 다양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다양한 평가들이 수렴되어 보육정책에 반영될 때 보다 발전적인 사업결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학계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단체들의 사업평가 및 대안 모색은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보육사업은 성인중심의 또한 공급자 중심의 경향성을 가졌었다. 보육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두말할 나위없이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육정책이 입안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아이들에게 인권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정책과 제도에 그것이 반영되었는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27일 시민운동지원기금의 후원으로 우리 회가 주최한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보육사업을 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보육사업의 재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에는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여러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본 글은 이 세미나가 이시기에 갖는 의미와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념화와 정책적 개혁방안, 2.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 개선방안, 3.보육사업의 행/재정지원체계의 개선방안, 4.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현황과 과제, 5.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6.여성복지적 측면에서 본 보육과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소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제한된 시간과 아동인권의 관점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우리 회에 의해서 이제 막 시작된 상태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본 고에서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대안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위의 6가지 소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좀더 깊은 논의와 연구, 토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로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재개념화와 정책적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정병호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공동육아연구원장)는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1)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보육사업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점 2)보육문제와 보육수요에 대한 사전 연구부족으로 재정투자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점 3)보육제도의 실질 운영주체의 선정과 보육내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감사 장치의 미비 4)민간의 자발적 역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영리추구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 5)차별성있고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지 못한 점을 들고 이를 극복하고 보육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아동, 가족, 지역공동체에 대한 복지 및 교육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제'의 입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이를 줄여야 할 필요성 셋째,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방안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점 넷째, 민간, 특히 보육수요자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역량을 보육사업으로 유도할 것 다섯째, 다양한 사회집단의 가치관과 생활상에 맞는 특화된 보육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 여섯째, 보육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및 보육사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에 대

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윤찬영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를 하였다. 우선 간략하게 아동의 인권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규범적 문제, 실효적문제로 나누어 적용대상의 범위, 국가의 책임, 시설의 책임, 보육인력, 조직, 벌칙 등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윤찬영교수는 입법의 개선방안으로 1. 대상범주에 있어서는 보육사업의 대상을 12세까지 연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18세까지 인정하고 법 제1조의 대상자 요건을 철폐하고 "모든 아동"이 사업대상이 되어야 하며 2. 보육비용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보호자 등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보조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3. 시설에 대한 책임규정을 두어 첫째, 설치기준 강화 둘째, 행위규범 및 운영기준의 제정, 셋째, 보육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의 필요성 4.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등의 연합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적 목적을 실효성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육위원회에는 공익대표의 참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사업의 행정·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은 허선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하였다. 허선교수는 우리나라 보육행정체계의 일반적 조직과 기능을 설명하고 문제점으로 보육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보육위원회의 기능미약,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미약,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족을 들었다. 이외 개선방안으로 행정조직 및 인력의 강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보육위원회의 기능강화, 보육정보센터의 확대, 설치 및 기능의 다양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보육료전액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은 시설이 민간이든 공립이든 연령에 맞는 표준보육단가가 지원되어야 하는 점, 50%경감아동에 대한 지원액의 증액, 장기적으로 보육료 차등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법정 저소득층, 전액지원, 부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네 번째로 김정열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현황과 과제'가 이어졌다. 이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아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장애아의 범위 및 실태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1. 국공립시설에서 장애아전담반을 설치하는 방안 2. 장애아보육에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의 마련 3. 보육위주의 프로그램보다 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교사자격을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를 배치하는 방안, 장애아보육교사의 수당인상(현재 5만원에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수당과 같이 11만 5천원으로)

다섯 번째로 박금희 보육지도원(안산보육정보센터)의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관련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내용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UN의 아동권리조약이 있기까지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의 모색으로 일본의 인권보육을 소개 하였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의 측면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아동의 인권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교사의 준비로서 '보육교사 윤리와 강령'을 소개하였다. 또한 아동보육환경으로서의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왕인순사무국장(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여성복지적 측면에서 본 보육과 아동의 인권'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지원이 차지하는 위치로서 맞벌이가정에 대한 소득보전과 아동양육지원의 의미,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의 질적 격차해소, 보육지원주체의 다양화와 지역사회복지의 향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 확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바람직한 보육제도의 방향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업주 지원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영아보육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부모회 운영방식의 개선과 이와 활성화를 들고 이와 함께 모성보호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산전후휴가기간의 확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육아휴직 대상연령의 확대와 휴직기간의 확대, 휴직기간 중 소득보장, 가족간호휴가제도입의 필요성을 들었다.





서울보육교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오윤정 · 본회 서울지부장

지난 11월 28일 오후 다섯시, 본회의 서울지부 창립총회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이번 창립총회는 서울 보육교사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본 란에서는 초대지부장의 글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북 북지역, 봉천지역, 남부지역, 국공립교사회 등으로 흩어져 있던 교사모임이 「서울보육교사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보육의 산 역사라는 봉천지역 언니들도 왔고, 유아잡지에 나온 광고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주 보던 사람들인데 서울보육교사회라는 이름으로 만나니, 그 만남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서울보육교사회 대표자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모아 사업을 하는데는 영 서툴고, 또 남들 앞에 나서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결국 힘들지만 내가 나서면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리고 북부지회(저는 북부지회소속이기도 합니다)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지요.” 그날 돌아 오면서 다른 사람은 영광이라는데 왜 난 두려워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 스스로 교사회를 앞잡아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경력이 이제 8년이 되어가면서 처음처럼 소박하게 일하는데 재미있어하기 보다는 다른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남들이 인정하는 전문성과 그에 맞는 자리를 갖고 싶었고 또 노동의 대가도 적절하게 받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회의 임원이란 내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고, 많은 회의에 참가하면서 지칠 테고, 그러면 날 위해 공부하고 날 위한 여가시간이 줄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혼란한데도 총회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창립총회를 치렀습니다.

잘하라고 준 꽃다발이 거실 벽에 달려있는데 그 꽃을 보며 또 생각합니다.

“윤정아, 결심했니?”

아직도 결심이 굳게 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나면 사업과 교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서울회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자구요. 그래야, 이렇게 여린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북부지회에는 옛이야기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7명의 교사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인데 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기다려지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부가 곧 다른 사람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됩니다. 저는 서울교사회도 이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 속에 녹아 다른 사람의 지팡이에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지팡이가 되고도 싶습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오윤정, 너는 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 되었지? 왜 서울지부장이 되었지?” 내년 서울보육교사회 총회때 이 답을 명확하게 얻도록 생활할 것입니다.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에 이르기까지

박정애 · 본회 조직부장

한국보육교사회의 올해 사업목표중 아심차게 계획했던 서울보육교사회건설!!

1. 서울보육교사회 건설을 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작년 6월 지탁연 시절의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와 함께 탄생한 「국공립보육교사회 창립」은 우리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대부분인 우리회에서 국공립보육교사회가 갖는 의미는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국공립보육교사회의 탄생과 함께 서울지역의 남부보육교사회, 봉천지역위원회와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서울지부건설의 과제가 대두되었다.

먼저 중앙조직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단위의 대표들과 만남을 시작하였다. 7월에 첫모임을 가지면서 서울지부 건설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준비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부터 차근차근 논의에 들어갔다.

그당시 주요 쟁점은 ①한국보육교사회에서 서울지부가 갖는 위상은 이해한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나 가슴으로는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즉, 현재의 과제는 지부건설보다는 지회사업의 강화가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부건설이 어떠한 장점을 발휘할 것인가였다. ②10년의 역사가 있는 봉천지역과 남부보육교사회, 갓 태어날 국공립보육교사회는 각각이 특성과 개성이 너무 강하는 것이었다. 이 개성 강한 세곳이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 어떤 매력적인 비전으로 함께 모일 것인가?

두가지 쟁점을 풀어나가고 머리부터 가슴까지 동의하는, 그래서 힘있는 교사회를 건설해내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5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했다. 5개월간의 세지회장들은 “좋다. 서울지부 건설하자. 단, 회원들의 전체합의 속에 힘있게 건설하자”로 모아졌고 회원들에게 서울보육교사회 건설을 위한 제안문을 발송하고 지회별 토론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지회의 사업, 교육을 하던 것을 서울 전체에게 열어 서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울보육교사회 준비모임에서 준비위원회까지

97년 말부터 시작된 조직평가와 98년 주요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꼭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총회를 한다”로 결정하였다. 작년의 두차례의 전체모임과 각 지회별로 토론을 활성화하며 점차적으로 분위기는 조성되어 갔다.

98년 준비모임에서는 ①서울회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의 교육센터사업인 ‘교육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소모임구성, ③서울지부건설의 중요 핵심 될 북부지회 재가동, ④하반기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하였다.

1) 소모임

교육센터 ‘그림책100권 보기’강좌 이후 참석자중 6명이 지속적인 모임에 동의를 하여 소모임이 구성되었다. 5월부터 진행되다 현재는 소모임 주체가 개인적인 건강의 사유로 모임이 해소되었다. 구성원중 1명이 북부지회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우리 음악교육 강좌

4.5월에 걸쳐 서부(이화, 거평어린이집)와 북부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음악교육강좌’가 있었다. 교사들의 우리음악에 대한 욕구와 서울지부건설의 토대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직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진행되어 서부쪽의 지평확대와 북부지회 재구성의 토대가 되는 성과를 낳았다.

3) 북부지회 새로이 장을 열다.

‘우리음악교육강좌’가 성황리에 마친후 3-4년간 미교류상태를 극복키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하였고 교사들 또한 모임에 대한 강한 갈증으로 인해 쉽사리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3-4년간의 공백기는 모임구성에 참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존재하였는데 구성원을 집단위로 할 것인지, 현재 보육교사회원으로 할 것인지 등 의견을 좁히는데 몇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려움속에 모임은 진행되었고 진행형식은 ‘관찰일지’를 써와서 발표, 토론하고,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성원들은 월 1회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할 정도로 모임은 역동성이 있었다. 전체모임과 별도로 동일이해를 모아 소모임을 갖는 부분도 탄력이 있어 ‘옛이야기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은 보이지 않게 싹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북부지회 가동과 함께 힘을 받은 준비모임에서는 9월초 연내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을 위해 준비위원회구성이 자연스레 요구되었고 9월 21일 모임에서 준비위원회의 꼴을 만들기 이른다. 이때 우리의 과제는 초대 회장의 총대를 누가 질 것인가였다. 난항에 난항을 겪으며 준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오윤정선생님)을 추대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오윤정선생님의 만남이 몇차례 있었다. 앞서 오윤정선생

님의 말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오직 하나, 지탁연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고, 조직에 대한 애정 하나로 초대회장의 험난한 길을 수락하여 중앙 집행부와 서울준비위원들의 시름을 거두어 주었다.

3. 준비위원회에서 창립까지

서울준비위원회에서는 초대지부장 추대가 결정되었고, 그 다음의 과제인 조직개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서울은 봉천보육교사회(준), 남부보육교사회, 국공립보육교사회, 북부보육교사회가 있는데 봉천보육교사회(준)에서 자진하여 남부보육교사회와 통합하는 것이 조직구조상 맞고 힘이 되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공립보육교사회도 지회(행정적인 의미)의 개념보다는 분과로 존재하고 있어 행정상의 개편이 올바르다는 판단으로 국공립보육교사회를 해소하고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편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서울을 3단위 남부, 서부, 북부로 개편하기에 이른다. 서울회원들이 확대되어 현재의 3단위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질 때는 ‘구’단위로 개편하는 가능성은 물론 존재한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합의되었고, 준비위원회의 일은 착착 진행되었다. 부서장도 내정해 놓았고 사업계획도 마련하였다. 창립만 남은 것이다.

창립일 오윤정지부장님의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과 준비위원들의 분주함이 창립의 설렘을 더해 주었다. 본 회 정회원회장님의 축사 중 서울지부창립의 중요성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고, 토요일이라 전회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우리 회원과 축하객들의 마음은 ‘흐뭇’ 그 자체였다. 후담으로 최순옥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자주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였지만 창립을 하는 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컸나 보다.

이렇게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은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했다. 많은 회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서울보육교사회!

축하메세지 모음

초대지부장의 결단을 내린 오윤정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근 2년간 서울지부건설을 위해 가슴앓이를 해온 이윤경, 김진숙, 이경녀선생님! 역사는 그 대들의 노고를 진정 잊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뒤늦게 후배들을 위해 지회장 자리를 거머쥔 박영미선생님, 젊고 활기찬 북부지회를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준비위원으로 함께 하신 황호정, 김미선, 김수연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다음은 자네들 차례인 것을 아는가?

전국교사들이 보내온 성원에 힘입어 서울 교사들의 대변자가 될 서울보육교사회!

우리의 희망이 될 서울보육교사회!

우리모두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서울보육교사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육교사의 첫발걸음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박정혜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윤정선생님을 기둥으로 한국의 모범이 되는 교사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구보육교사회 준비위

서울 쌤들! 드디어 창립을 합니까?
여정이 많이 길었죠.
모두 수고하셨고예, 내년에는 꼭 모범지부상을 타도록 부산보육교사회 회원 모두 꺾꽂이 밀어줄게예.
부산보육교사회 회원일동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창립을 온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창립 준비로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한국보육교사회 내에서 서울지부가 "王입니다요"
수원지회 준비위 일동

더도말고
덜도말고
인천보육교사회
만큼만 하세요,
인천 교정미

경 축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보육교사들의 노력으로 더 크게 자라나온 희망하나, 바로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의 창립을 지켜봅니다.

이땅의 경제와 더불어 우리네 가슴까지도 뚝뚝 얼어붙어 더욱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서울지부 교사들의 모습속에서 가슴 따뜻함을 느끼며, 한국보육교사회의 또다른 지부로서 든든한(?)동지적 사랑을 담아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보육교사회로의 전환이후 비록 짧은 동안이었지만 교사 한명 한명의 노력으로 저희 한국보육교사회도 제법 제 모습을 갖추어가는 듯 합니다.

이번 '서울지부 창립'을 계기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보육운동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지부

서울지역의 보육교사 공동체 건설에 힘써 갈 서울지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노력하신 열매라 생각합니다.

이 열매 떨어져 씨앗이 대지에 뿌리 내릴 때 서울지부의 한층 발전된 또 다른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지략면 역사의 계승.발전속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인천지부 회장 및 회원의 마음으로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사업을 벌이며

최순옥 · 본회 사무국장

본회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으로부터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사업이 선정되어 수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실업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이는 IMF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면 실업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어떤 이는 이제 우리사회가 구조적 실업 시대에 들어섰을 뿐이며 이후로도 우리는 고실업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누구나 대량실업사태가 곧 끝나기를 바라지만, 실업문제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듯하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 실업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는 상당히 클 것이고 우리사회는 큰 사회적 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량실업이라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찾아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고 생활과 삶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황폐해질 것이다.

노숙자, 실직자들의 문제, 끔찍한 사건·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실직이나 부도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여성노숙, 가족노숙까지 있는가 하면 가출, 자살,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삶의 짐이 무거워 자신이 짊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사람,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남편이기를 포기하고, 아내이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가족들의 삶까지 포기시키는 사람……

희망을 잃고 좌절한 사람들은 그래도 언젠가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비틀어진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존을, 생명을,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변모이다. 다른 아이에 대한 폭력, 학대, 비하, 따돌림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병든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감자의 이데올로기가 어린이, 청소년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번져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수술은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만으로 병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증상을 심하게 하는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업대책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삶의 최저선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런 때일수록 사회개혁에 온힘을 실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이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 지지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삶의 최저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지·지원해주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여러사람들의 힘을 모아 실업문제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범국민적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발족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업은 참으로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리 회에서도 실직가정 자녀의 양육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면서 실직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자 지난 10월 ‘실직가정 자녀의 겨울나기’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의미가 인정되어 지난 12월 1일부터 ‘실업극복국민운동’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직가정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실직가정에 대해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뜻있는 시설장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부담으로 실직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실업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볼 때, 실직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또한 겨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수행과정에서 실직가정 자녀 양육문제와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 지원제도를 확대해나가는데 힘써야 하겠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에서 그간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그 수입으로 가정경제를 꾸려왔던 많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실업은 곧바로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자녀를 둔 실직가정의 부모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의 실직 여파로 생활이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수행되어야겠다.

우리 회는 일찌기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부터 맞벌이가정 자녀의 양육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시켜 영유아보육법을 만들기까지 일정한 역할을 해 온 바 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힘써, 미비하지만 지금의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제 위기 상황을 맞은 현실점에서 포괄적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종사자들과 함께 실직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켜 제도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겠다.

10여년 전 해영이 용철이 사건, 세쌍둥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실직가정의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을 감싸 안자.

실직가정자녀 겨울나기 일시보육비 지원사업 참가안내

주최 : 실업극복국민운동/주관:한국보육교사회/후원:한겨레신문/MBC/근로복지공단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 지원으로 실직가정의 자녀에게 겨울동안 일시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대량실업의 시대에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부모의 실직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 ◆ 사업대상 : 전국의 보육대상아동 중 1000명
- ◆ 신청자격 : 재산이 전,월세 3200만원(단,서울은 4800만원)이하인 가구로 부부중 1인이 실직 한 가구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원이 생길 시 3월 20까지 상시접수 (현재 정부로부터 보육비용 보조를 받는 아동은 제외)

참여를 원하시는 보육시설은

대상아동을 현재 보육하고 있거나 본 사업에 의의에 동의하시며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한국보육교사회 각지역별 접수기관으로 전화신청
- ② 대상아동이 보육시설이용확정서를 가지고 내원할 때 해당지역 접수기관으로 연락
- ③ 접수기관에서 원으로 신청서양식을 우편으로 발송
- ④ 서류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1부/시설인가증사본 1부/시설장명의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1부/이용확정서 사본 아동당 1부

- ⑤ 접수기관의 안내에 따라 아동을 보육(아동입소일은 매월 1일과 15일)
▶ 보육은 일일 6시간으로 학부모와 상의하여 오전/오후로 나누어 보육함.
- ⑥ 월 보육료 35개월 이하 70,000원 /36개월 이상 50,000원이 시설장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한 아동당 최장 3개월까지 보육가능함.
▶ 신청아동이 시설이용을 그만두었을 경우 해당지역 사업본부에 보고
▶ 일일 6시간 이상의 보육을 요구할 경우 각 어린이집의 내부규정에 따른 추가보육료를 받음
▶ 매월 말 아동의 출석부 사본 1부 제출
▶ 보육료지급 1일 입소아동의 월 보육료는 15일 지급/ 15일 입소아동의 보육료는 매월 말일 지급
- ⑦ 월 1회 해당지역 지역본부에서 모니터 실시

지원을 원하시는 가정은...

- ① 지원을 원하시는 가정은 해당지역 접수기관으로 전화신청(원하시는 보육시설명을 명기)
- ② 접수기관에서 가정으로 신청서 발송
- ③ 신청서류를 해당지역 접수기관으로 우편접수 (1차 12월20일)

▶ 신청서류
신청서 1부/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실직증명서류 사본 1부

▶ 현재 이용하고 계신 어린이집이 있거나, 이용이 편리한 인근의 어린이집이 있으면 신청서에 명기함→ 이용자가 신청한 희망시설에서 본 사업에 동참할 경우 이용가능(단, 희망시설이 본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인근의 다른 보육시설을 안내함)

- ④ 12월20일까지 접수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보육시설 이용확정서 발송

▶ 신청자격:
1. 무주택자로 가구당 재산이 전,월세 3200만원이하인 가구(서울 4800만원 이하인 가구)
2. 무주택자로 가구당 재산이 위의 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부부 모두가 실직한 가구
(※ 단 현재 정부보육비용보조를 받는 아동은 제외)

- ⑤ 이용확정서를 가지고 이용확정된 보육시설 방문

- ⑥ 보육시설 이용 (보육시설 입소는 매월 1일과 15일)
▶ 보육시설이용은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일일 6시간이며, 보육시설과 상의하여 오전,오후로 시간을 결정함.
▶ 일일 6시간이후의 추가보육을 원할 경우 해당 보육시설과 상의하여 추가보육료를 지불하여야 함.
▶ 시설이용은 최장 3개월

- ⑦ 보육시설 이용을 그만둔 경우 해당지역 접수기관으로 보고

각 지역 지역본부 연락처

- ▶ 한국보육교사회 본부(02-271-1548): 서울/ 강원도/ 제주도
- ▶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032-542-7004): 인천/ 경기도
- ▶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지부(062-226-6740): 광주/ 전라남북도/ 충청도
- ▶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051-324-1297): 부산/경상남북도

기적 - 생활 속에 녹아든 음악의 힘

서지예 · 근로복지공단 안산 어린이집 교사

달랐다.

주게스토케디 음악교육은 달랐다.

체르니(피아노 교본) 문턱을 간신히 넘어서, 음악담당 교사를 하고 있는 나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음악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주게스토케디강좌에서는 첫주에 - 인형을 통한 통합적 음악교육, 둘째 주 - 새로운 노래와 놀이 만들기, 셋째 주 - 음악 감상을 통한 미술교육, 넷째 주 - 음악적 즉흥력과 상상력 키우기를 배웠다.

영아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가 변화”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거쳤다.

첫 수업시간부터 교사가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붙여보게 하였는데, 이것은 내게는 무척 박찬 활동이었다. 음악을 작곡한다는 것은 음악전공자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단 말인지.

그렇게 어렵게 만든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악보 참조하세요)는 노래.

아이들은 장난감 치우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정리정돈” 노래를 부르는데, 영아가 부르기에 노래가 너무 길고, 노랫말도 어렵다. 결국 노래는 선생님 혼자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장난감을 치우자는 노래를 만들었다. 아이들의 기호와 수준을 반영해서 부르기가 쉽고, 간단한 노래로 만들었더니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장난감을 치우면서 흥얼대는 아이, 노랫말을 바꿔서 부르는 아이, 치우지는 않고 노래만 불러주는 아이 등 교실은 온통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로 가득찼다.

아이들도 재미있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음악을 재미있고 한번 해 볼만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게스토케디 교육의 특징은 우리가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악적 요소들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데, 사물놀이 뿐 아니라, 판소리, 해금 산조, 대금 연주 등의 국악, 서양의 고전악할 수 있는 그레고리안 성가, 호른을 주 테마로 다룬 클래식 음악, 동굴에서 들려오는 ‘오울’소리 등 장르선택에 거침이 없다. 교사는 이 음악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쉽게 상상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특히 다양성은 주게스토케디 음악교육의 중요한 철학이고 아동관이다.

이것은 박성준 주게스토케디 음악교육원 원장님이 교사들을 교육하는 시간동안 일관되게 취해온 자세에서 느낄 수 있었다.

교사들이 다소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의견을 내어도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자세는 무척 놀랍고도 생경한 것이었다. 다양

한 생각과 느낌을 수용하면서 이후에 펼쳐질 교육에서 적절한 테마로 바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내었다. 교육받는 동안 무엇이든 질문하고, 나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수업시간은 즉흥적이면서 생동감이 넘치고 기지가 번뜩였다. 주게스토케디 음악교육을 받고서 한달 동안은 그것을 교실에서 해보기에 바빴다. 아이들과 같이 손인형을 만들기 위해 천을 골라 재단하고, 색실로 바느질하여 토끼, 호랑이, 강아지를 만들었다.

굳이 음악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그 활동 자체로도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노작물을 충분히 사랑해주었다. 그 인형을 가지고 칠레 민요를 노래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개사해서 동요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생활 속의 음악이 가지는 힘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일이 하나 생겼다.

우리 반은 네 살짜리 아이들 교실인데, 한 아이만 다섯 살이다. 그 아이의 언어 발달은 세살에 못미치거나 그 안팎이다. 그래서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몇 주 전 낮잠 시간, 옷장 뒤편에서 노래소리가 들렸다.

내가 만든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를 흥얼대는 것이었다. 무심코 돌아본 내 눈에, 누워서 발장난을 하는 아이가 보였다.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른 노래, 생활 속에 녹아든 음악은 그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말은 못했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익힌 노래는 아이의 마음에 자리잡았던 것이다.

요즈음 유아음악 교육 중에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도 즐겁지 않고, 아이들도 음악수업 때 긴장하

고, 행사용 합주를 위해 음악을 도구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음악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다가 쉽게 지치게 된다.

주게스토케디를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놀이”를 알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조만간 ‘주게스토케디 음악교육’을 꼭 다시 만나길 바란다.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

Ⅰ
솔 파 솔 미 솔 솔 파 솔 솔 미
애 - 들 아 장 난 감 치 우 자
장난감치우고 밥 - 먹 자
솔솔파 솔솔미 솔 파 솔 미

Ⅱ
라 솔 라 미 라 라 솔 라 라 미
라라솔 라 미 라 솔 라 미

참고) 악보 Ⅰ은 내가 작사·곡 한 것이다. 이것을 박성준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악보 Ⅱ로 고쳐보았다.

악보 Ⅱ는 우리가타를 느낄 수 있게 전통적인 음계로만 작곡하였다. 우리 정서엔 역시 악보 Ⅱ가 더 어울렸다.



비디오그림책에 대한 의견

서은의 · 본회 부회장

1. 비디오그림책이란?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청각을 가미한 비디오그림책은 현대의 기술이 만든 새로운 시스템의 그림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림책과 비디오그림책의 공통점은 텍스트의 전달이 시각적 표현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며, 다른 점은 그림책의 문자 대신 비디오의 음성이 텍스트의 전달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점은 편집에 있어서 구성, 짜임의 차이라 하겠다. 그림책이 텍스트가 몇 장의 페이지로 나누어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매체라고 한다면, 비디오그림책은 화면이 눈에 비춰지는 시간의 길이와 이야기의 템포와 분위기, 그리고 스토리의 중요성 등을 나타내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책의 경우 어떤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어떤 레이아웃을 할 것인가로 화면 구성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비디오그림책은 스토리의 화면과 다음 화면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중요한 화면의 경우 머무는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또 는 주요 화면을 어떤 프로포션으로 잡아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화면 구성을 결정한다.

2. The Snowman

비디오그림책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레이먼드 브리그의 1978년 그림책 'The Snowman'을 영화로 만든 '눈사람아저씨'이다.

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신이 나서 눈사람을 만든다. 그날 밤 그 소년의 꿈 속에 낮에 만든 눈사람이 방문하여 소년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여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 준다.

미완성인 듯한 색연필 터치와 화면 분위기가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의 느낌을 전해준다. 레이먼드의 독특한 인물묘사에 표정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얼굴 표정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밀히 관찰되어 표현된 몸놀림의 조화는 시각적이라기 보다는 육감적인 표정을 전해 주고 있다. 대화 언어보다는 배경음악,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인한 분위기 중심의 묘사가 차가운 설국(雪國)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사람을 보다 환상적으로 보여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스노우맨'을 자주 보았는데,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 비디오를 보는 반면 영아들은 무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음악이 장중하고 눈사람의 생김과 움직임이 아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림책 '눈사람아저씨'는 비디오를 접하고 한참 뒤에 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은 가나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다. 그림책의 구성은 영화의 컷처럼 한 장면마다 작은 그림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어린이집의 나이 어린 아이들은 그림책을 조금은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비디오를 통해 친숙해 있는 내용이라 6, 7세 아이들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 보기도 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그림책이 비디오만큼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또, 비디오에서 나오는 눈사람들의 세계가 그림책에는 없어서 아이들이 그 내용이 어디있는지 찾기도 했다.

3. 기타 비디오그림책에 대하여

그림책을 비디오로 만든 작품들 중에 책은 못보고 비디오만 본 작품은 '레오니오니의 5클래식'이 있고, 비디오는 보지 못하고 그림책만 본 작품은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

레오니오니의 비디오는 레이먼드 브리그의 '스노우맨'처럼 화면의 움직임이 많지 않으며, 성우가 글을 읽어 준다.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난 뒤 아이들과 괴물놀이를 하며 아주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난다.

영상세대라고 불리우는 요즘 아이들은 빠른 화면을 좋아한다. '스노우맨'과 '레오니오니의 5클래식'을 가지고 보면 아이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장면에 알맞는 음향, 그리고 연속되는 움직임 표현한 스노우맨을 레오니오니의 5클래식보다 좋아하는 것 같다. 레오니오니의 작품은 그림책으로서는 손색이 없으나 비디오로는 화면의 움직임이 아이들의 선호에 맞지 않아서인지 아이들이 덜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빠른 움직임의 영상물과 느린 움직임의 영상물의 고른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교육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4.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하나?

비디오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때, 그림책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림책이 갖고 있는 긍정적 점을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한 뒤에 새로운 매체인 비디오로 똑같은 내용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속에 그려던 상상의 세계와 느낌을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 더욱 더 풍부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비디오그림책과 그림책

비디오그림책과 그림책을 비교하여 좋고 나쁘다는 두 가지 의견만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디오그림책도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만을 내리고, 지금까지의 그림책 모두를 비디오그림책으로 만들 수는 없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림책의 매력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림책을 그 나름대로의 매력과 감정의 느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책의 장점이 비디오그림책으로 커버될 수 없다고 하여 모든 비디오그림책을 부정하고 거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비디오그림책이 살려낼 수 있는 스피디하고 박력 있는 전달과 시청각으로 전해오는 메시지의 정확함과 같은 비디오그림책 특유의 분위기는 일반 그림책이 표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스토리에 맞는 소재와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려 내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디오그림책과 그림책은 개성적 매체로 존재되어야 한다.

부산관찰일지 “생태교실-물레”의 연수를 받은 후

이번 부산관찰일지는 지난 여름 포구나무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본에서 ‘생태교실-물레’(11월호 현장소식 참고)의 연수를 받은 후 부산보육교사회에서 공유한 후 바깥나들이 관찰을 한것입니다. 그중 아기자람터와 포구나무 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던 바깥나들이 관찰일기를 소개합니다.

-아기자람터-

평소 황령산 나들이를 갈 때는 막연하게 1주일에 한번 보육시설의 집을 떠나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뛰어 놀고 온 것 같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아이들이 좀더 자연 속에 동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레의 이론을 접하고, 루케(8배로 확대되는 현미경)와 관찰통으로 자연을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지 못한 자연의 신비함도 느끼고, 그것으로 요즈음은 자연과 친숙해진 것도 사실이다. 지렁이를 손으로 잡는 아이가 있다. “선생님 지렁이요!” 했을 때,

교사1) 그냥 두어라. 아니면 교사가 고함을 지르면서 어머, 아이 더러워 거기 그냥 두어라 했을 때와

교사2) 지렁이 똥 누는 것 보았니? 지렁이는 똥을 꼬리 끝에서 동그랗게 눈다. 하면서 지렁이를 보면서 한번 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교사.

교사2)가 되었을 때, 교육적인 내용을 주어서 아이들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자연 속에서 배우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연 속의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소리없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저마다의 느낌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관찰에는 가족나들이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황령산 꼭대기 봉수대에 5-6세만 갔다 온 것을 관찰일지로 적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한 번은 비가 온 다음날이라 미끄러워서 가지 못했지만... 비가 온 뒤 황령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일 시 : 1998년 10월 15일 목요일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시

장 소 : 황령산

내 용 : 연꽃반(5명)만 가려고 했는데 딸기반 아이들도 가려고 한다. 도저히 두고 가면 울 것 같아서(마음이 안되어서, 4살중 약 먹는 아이는 두고-정당한 이유)딸기반 4살 1명, 5세 2명도 데리고 딸기 선생님과 같이 가게 되었다.(총8명)가는 길목에서 아이들은 쉬지 않고 재잘거렸다.

한얼(5세, 남아) : 선생님 막대기요.

현진(5세, 남아) : 핀 버렸어요.(거리에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소연(4세, 여아) : 호박요.

정운(6세, 영아) : 안쪽에 호박 2개요.(큰것하나 중간 것 하나가 매달려 있다.)

현진 : 선생님(!)

동네 한바퀴 할 때 이쪽으로 왔지요.

신원(6세, 남아) : 선생님 배후예요.

신호등을 건너서 약간 오르막 길에서,

딸기선생님 : 애들아, 하늘 보세요.

정운 : 비행기요.

연꽃선생님 : 비행기 어디에, 아! 저기 있네.

아이들 몇 명 : “선생님 없어요”한다.

자동차 굽힌 곳을 딸기 선생님이 루케로 본다. 현진이 상원이도 본다. 이때 상원이가 동물들을 관찰한다. 허파로 숨쉰다. 아이들은 걸어가면서도 사물을 자세히 본다.

우정(5세, 영아) : 선생님 태극기요.

연꽃 선생님 : 어디에, 어디에 있는데.(정말 몰랐다)

자동차 학원 들어가는 입구에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었다. 요즈음 딸기반에서 배웠던 태극기가 눈에 띄었는것 같다. 이 때 한얼이와 현진이 이제서 자리 바꾸어서 걸어가자 했다.

황령산 입구에서 노인정 할머니를 보자 정운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다.

비가 온 뒤라서 황령산을 올라가는데 간 옆 도랑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노인정 벽에는 달팽이가 붙어 있었다. 다음 번에 올 때는 꼭 달팽이를 확인한다.)

연꽃선생님 : 애들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있네.

새소리를 듣고는 상원이 "선생님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비슷해요" 했다. 풀에 달린 거미를 보고 "선생님 왕거미 있어요" 긴 시멘트 바닥길에 길게 도랑처럼 패여 있으니깐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하고 상원이 물었다.

연꽃선생님 : 왜 그러니?

상원 : 차가 지나가는 바퀴자리여서 그래요.

대찬 :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나온다.

아이들 : 까치집이다.

가는 길에 아저씨들이 황령산 산길 공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 계속 인사한다. 현진이 지렁이를 발견.

연꽃선생님 : 지렁이 통 누는가 보세요.

아이들 : (일제히 앉는다.)

이때 정운이, 가영이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급한 나머지 "가영아, 루게 가지고 온나, 아니 관찰통 가지고 온나"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유정이가 손으로 잡아 관찰통에 넣는다.

한얼이는 큰 나뭇잎을 들고 와서는 "손바닥 보다 큰 나뭇잎이에요" 한다. 가쪽나뭇잎에서 한얼이 가쪽이 보물찾기에서 손바닥보다 큰 나뭇잎 찾아오기를 했다. 그 기억이 되살아 나는 것 같다.

아이들 : 물이 계속 내려와요. 비가 와서요. (큰 소리로) 선생님 물이 나와요. 산 위에서부터 물이 졸졸 내려와서 도랑이 아닌 길에도 물이 있었다.

상원, 가영이가 "선생님 지렁이 숫자 2예요" 한다. 그리고는 "선생님 일로 보면(이리 보면) 크고, 선생님 일로 보면(이리 보면)작아요" 했다. 관찰통에 넣어서 요리조리 보니 정말 그랬다.

상원 : 지렁이 여기서 살려주자.

가영 : 선생님 살려주까요?

연꽃선생님 : 의논하세요. (항상 관찰통에 넣은 것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살려주었다)

가영 : 나는 더러워서 못하겠다.

상원 : 안 더럽다.

정운이가 힘들어하면서 지렁이를 살려주었다. 가영이는 만지니깐 부들부들 더럽다 한다.

연꽃선생님 : 지렁이 물에 목욕했어요.

상원 : 미끄러워요. (계속 만진다)지렁이 잘가라.

한얼이 단풍잎을 보고는 "가을은 가을은 무슨색이에요" 한다. 까치집 보세요. 들꽃을 뜯어서 "우" 붙어 본다. 조그만 도랑에 발도 담근다. 상원이는 작은 풀을 보고 "선생님 뿌리채 떨어졌어요" 한다. 아이들이 작은 도랑을 보자 양말 벗고 들어가자 현진이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도 양말을 벗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가영이, 지영이는 도랑 건너뛰기 하다가 나뭇잎

을 뛰어보기도 한다.

정운이 물이 내려오는 산 길에 긴 막대기 좁은 것을 놓아두고 이 막대기가 언제 떨어지는가를 보고 있다. 조금 올라가서는 진흙에 상원이가 넘어져서 손바닥이 진흙으로 덮혔다. 나는 상원이를 마른 풀밭에 데려가서 풀에 닦게 했다. 산속나무에서는 청설모가 뛰어다녔다. 작은 이끼에 붙은 조그만 녹색 벌레를 루게로 보면서 가영이는 "선생님 다리가 보여요" 한다.

한얼이 : 콩벌레 있어요. 여기.

진흙발자국을 보고는 선생님 발자국이네요 한다. 진흙에 물이 고여 있으니깐 선생님 분홍 오줌물 있어요 한다. 루게로 이름 모를 벌레를 보고 난 뒤.

가영 : 선생님 흰 벌레 봤는데 삐죽삐죽했어요.

상원 : 벌레들이 점이 두개 있어요.

내려오는 길에는 평소 가보지 않은 길로 내려왔다.

현진 : 대찬아, 우리 이길 처음 가본다. 선생님 신기해요. 이끼를 루게로 보자. 억수로 예쁘다. 아! 이쁘다.

가영이 : 선생님 이쁜 것 많이 봤지요.

현진이 : 선생님 정운이 누나는 2번 보아요.

상원 :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가니 나방이 있었다.

한얼 : 나비 같아요.

상원 : 죽이지 마라 했다.

물이 도랑으로 흐르고 나무로 만든 계단처럼 생긴 좁은 길, 아주 작은 폭포, 돌계단, 돌탑 등 비오고 난 뒤 깨끗할 때문인지 몰라도 대찬이는 "여기 너무 아름답다" 한다.

또 한참을 내려가보니 돌 위에 까만 달팽이가 있었다. 서로 보려고 하다가 떨어뜨렸다. 상원이 "죽이지 마라" 한다. 관찰통에 넣어서 다같이 보게 되었다.

연꽃선생님 : 선생님은 황령산이 너무 좋아. 사랑해, 황령산 사랑해.

지영이 : 나도 백두산.

돌탑을 보더니,

상원 : 성 같다.

가영 : (관심 끌기 위해서) 토끼 눈썹 있어요.

단풍잎을 주위를 비닐봉지를 소원이 힘들다며 들고 간다. 가영이 깃털을 주워서 "선생님 까치 것 같아요" 조금가다보니 지렁이가 죽어 피가 나 있었다. 사람 발에 밟힌 것 같았다.

연꽃선생님 : 조심해서 걸자. 우리가 모르고 개미도 죽일 수 있어요. 상원이 조금 내려가서 까만 달팽이를 살려준다.

가영 : 선생님 이 나무 뭐예요.

연꽃선생님 : 글썽 이파리가 많으니 일이 많은 나무라고 하자

오는 길에 큰 지렁이를 보자 아이들이 관찰통에 넣어서 본다.

연꽃선생님 : 코스모스 너무 이쁘다.

유정 : 저기도 있어요.

우리가 지렁이를 물에 살려주었던 곳으로 왔다. 큰 지렁이를 놓아주었다.

가영 : 지렁이 목욕해요. 샤워해요.

황령산 입구에 다다르자 우산풀을 들고 와서는 한얼이가 "선생님 이거 뭐예요?"한다.

연꽃선생님 : 우산풀!

한얼이가 다른데 가서 "선생님 이거 우산풀이에요?" 한다. 자랍터에 오기전 건널목에서 흰 선 안에 아이들이 서있으니깐 노란선 안에 들어가자고 현진이가 말했다.

-포구나무어린이집-

관찰일지 1.

연 제 : 1998년 9월 19일 토요일

몇 명 : 총 35명(교사4명, 자원봉사 이모3명, 삼촌1명)

산행코스 : 문화회관공사옆길→성문→북장대(산정상)→체육공원

산행시간 : 10시 20분 - 12시 10분(총 1시간 50분 소요)

오늘은 이모 삼촌이 좀 일찍 어린이집에 왔다. 그래서 일찍 서둘러 간다는 것이 준비하다 보니 그만 또 늦어지고 말았다. 제일 앞에 파랑색선생님이 서고 중간중간에 이모삼촌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어 올라갔다.

개나리반 해호는 다른 물휴지통에 끈을 달아 만든 채집통을 메고 올라갔다. 저번에 민들레 흙씨처럼 생긴 꽃이 핀 길가에 '자리공'이라는 열매가 열려 있었다. 그것을 터트리면 진한 자주색의 물이 나오는데, 그걸 서로 달라고 야단이다. 이모와 교사가 따서 나누어주고 터트리려 손톱에 발라 주기도 하였다. 개나리반 해언이는 자리공을 발라주니 울려고 하면서 닦아달라고 야단이고, 진달래반 민정이는 매니큐어를 바른 듯이 손을 꼭 펴고 조심스럽게 길을 올라간다.

문화회관 공사장 옆길을 따라가다 성문으로 접어드는 오르막 길이 있는 곳에 진한 주황색의 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었다. 민들레반 아이들이 예쁘다며 한송이씩 꺾자, 작은 아이들도 예쁘다고 바라본다. 물론 꽃을 꺾어들고서.

앞서가는 아이들과 열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올라가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거나 풀을 보고 있으면 같이 풀을 바라보거나 노는 걸 지켜봐주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성문을 지나 북장대로 올라가던 중간에서 개나리반 해호가 땅에 말라있는 지렁이를 집어들고 물리샘에게 "응~"하며 보여 주었다. 그 순간 물리샘이 무의식적으로 깜짝 놀라자 해호도 얼른 잡고 있던 지렁이를 놓아버렸다. 그러자 물리샘도 이러면 안되는데...하며, 지렁이를 직접 손으로 잡고는 해호에게 지렁이라며 보여 주었다.

북장대에 먼저 도착한 아이들은 뛰어 다니며 놀고, 뒤쳐진 아이들도 힘을 내며 올라온다. 늦

게 올라온 개나리반 수경이가 정상에 도착하자 대뜸 "와 좋다"라며 감탄사를 내뱉기도 한다.

정상에서 삐죽삐죽 나있는 풀밭에 터를 잡고 아이들과 누워 하늘을 보았다. 선생님들이 먼저 누워 하늘을 보자 아이들도 따라서 한 풀 눕는다. 어떤 아이는 눕다가 풀이 따갑다고 그냥 앉아 있기도 한다. 또 준비해온 책에 나뭇잎을 꺾기 위해 아이들에게 예쁜 잎들을 주워 오라 하니 아이들 신나게 뛰어다니며 이것도 있어요 하며 가져온다. 그렇게 놀다 시간이 되어 체육공원 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는데 풀이 많아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지만 그래도 울지 않고 일어나 다시 걸어 내려오는 열린이와 규태.

내려오는 길엔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어 한송이씩 꺾어 들고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갔다. 산입구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아이들은 아직 힘이 남아 있는지 연신 뛰어 다니기 바쁘다. 삼촌이 늦게 도착한 아이들을 안아 내려주고 아이들 인원수를 확인하고 올 때처럼 짝을 지어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신나게 뛰어 놀고 난 뒤의 점심은 너무 맛있다.

관찰일지2.

연 제 :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날씨 : 무지 좋음)

소요시간 : 이른 10시 10분에 출발해서 12시 10분에 도착

함께 간 사람 : 아이들 33명과 교사 3명, 삼촌 1명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대포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면서도 늘 아쉬운 것은 모든 산이 그렇지만 층층이 논과 밭, 그리고 억새와 도토리나무, 작은 열매와 이맘때면 볼 수 있는 썩부쟁이가 있는 산 초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지나다니면서 버가 자라는 것을 보고 메뚜기도 잡고, 벼 이삭도 주울 수 있는 산초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포산도 예전에는 그랬겠지, 도심에 있다보니 층층이 논과 밭은 집들이 들어서고 도로를 지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산으로 천천히 모습을 바꾸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못된 습성이 또 나타나는구나, 이나마 이런 산책코스를 가지지 못해 부러워하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대포산행을 준비한다.

오늘은 산 입구에 있는 자리공열매가 잘 익었는데 그 열매로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고 종이를 준비하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현미경관찰통과 관찰수집통을 해호가 메었다. 선생님들은 루페를 목에 걸고 풀을 꽃을 책과 휴지, 비닐을 넣는 가방을 메었다.

아이들은 그날 마음에 맞는 자기 짝을 찾아 손을 잡고 출발하였다. 산 입구에 도착하여 잘 익은 자리열매를 한송이씩 들고 종이를 받아 여기저기 모여 앉아 열매를 짜면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 아직 어려 열매를 짓이겨 손가락에 발라 그림을 그리는 아이, "또 그릴래요"라며 연방 종이를 가져가는 아이, 빨리 그리고 열매를 돌에 이겨 돌 도장을 찍고 다니는 아이 모두들 열중해서 하는 모습들이 자리공의 열매에서 나오는 색깔만큼이나 예뻐다.

그런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들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였다. 손은 온통 자리공의 열매에서 나오는 물로 물들여져 예쁜 자주 빛이 되었고 얼굴도 인디언 전사처럼 그려져 있어 모두들 서로 쳐다보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울긋불긋한 손과 얼굴로 어린 인선이와 석주, 해호는 열매와 종이에 집중, 피카소의 그림 같은 난해한 선과 면을 그려대고 있었다.

그림을 정리하고 모두들 산 정상으로 향해 올라가면서 나무표면을 줄지어 오르는 재미를 보고, 루프로 나무 겹질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나무가지 하나씩을 들고 미끄러지며 기어오르며 즐겼다. 가파른 길을 올라서 먼저 도착한 아이들은 자주 볼 수 없는 흙위에 나무가지로 길을 만들고 솔방울과 나무가지로 야구를 하고, 솔방울을 던져 올려 다시 소나무에 올리기를 각자가 놀이를 찾아 여기저기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동안 민들레반 언니 밋은 소나무 관찰 그림을 그렸다.

나무의 결을 하나하나 그려 넣고 기어올라가는 재미를 그리고, 뻗어나가는 가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그려 넣고 그 가지 끝에 달려있는 솔방울을 그리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선생님, 그대 역시 자세히 보고 그려야 이렇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구나. 늘 아이들이 좀더 다르게 그려주기를 바라기만 했지 정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시계를 보니 어느새 11시 50분, 아이들 늦었다. 놀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토요일이라 일찍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이 인디언 전사 같은 모습을 보면 놀라실 꺼야. 그러나 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선생님 마음만 괜히 바랬다.

수원의 그림책강좌를 마치고 나서

이주영 · 수원보육교사회 준비위원회장

따르릉-

"네 보육교사입니다." "네- 296-7505 맞지요?" "네 교사회예요?"

강좌 문의하러고 하는데요?" "아- 예-"

이 길에 전화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전화원의 뜻에 따라 내가 있는 어린이집에 교사회 전화를 가설해 놓았다. 벨이 울릴 때마다 반갑고 이번 강좌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 꺼라는 막연한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다. 계획보다 조금 뒤로 가기는 했지만 드디어 수원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교육담당, 행사담당으로 나누어 지연선생님, 강영선선생님, 그리고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드디어 이를 중의 첫날 10월27일 저녁 7:30이 되었다. 청일 점으로 보육학과에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하여 열명이 접수를 하고 강의는 시작이 되었다. 수원지회 소개도 하고, 감사고개에 이어지고 소수이지만 진지하고 재미있게 들었다. 이튿날에는 다과도 마련하고 첫날보다 몇명이 빠진 숫자였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다 마치고 나서의 그 흥가분함. 그러면서도 남은 미련과 아쉬움.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못했을까? 그것은 결국 적자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첫술부터 배부를소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머리에 영화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이 강좌 준비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좋은 공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이런 강좌를 계획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교사회 소개와 회원 가입을 위해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

그림책 강좌를 통해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교사를 만나 서로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림책소모임도 꾸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미약한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것은 고치고 잘 된 것은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좋은 그림책을 이 강좌에서 처음 보았다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수고한 수원지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내년에는 더 잘 하자'를 외치며 감사님과 의 거리없는 뒷풀이를 뒤로하며 수원에서 서울 쪽대기까지 가셔야 하는 오윤정선생님을 배웅하였다. 오윤정선생님 우리강좌에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그림책소모임이 잘되어서 모범사례로 다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꼬망세 박수경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편집부

월간 꼬망세를 아시죠? 연말을 맞이하여 이벤트로 본회에 늘 호감을 가지고 좋은 기사를 실어주는 꼬망세의 박수경기자를 취재하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다가 역으로 인터뷰를 제안하니 많이 당황해 하였습니다. 참고로 월간 꼬망세는 「우리네 아이들」자료회원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며...

1. 늘 취재를 하러 다니시다가 이렇게 취재를 받으신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처음엔 무척 당황했지요. 늘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하다가 제가 받게 되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 잠깐동안 전화를 하면서 저의 모습을 봤다고 할까요? 이제는 제 전화를 받으시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네 아이들>에 저의 이야기를 담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1.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지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다른 언론기관도 아닌 유아교육지에서 일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쪽(기자)분야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제 길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정해지더군요. 그리고 대학졸업후 바로 유아교육 전문지인<꼬망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아교육 분야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기자로서 사명감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시는지요?

우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간지점인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겠지요. 또 어떤것을 접하든 간에 배운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요. 기자라는 일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사람냄새가 나도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이 IMF시대에 직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성한테 기자란 직업은 어떻다고 보세요?

여성한테 기자라는 직업이요? 음...그것보다는 저의 경우로 얘기하자면...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요. 우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니까요. 이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단점은... 글썽요? 일을 할 때 여러가지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하...

1. 직장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와 보람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 때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와 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요.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고 취재를 들어갈 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잘 진행하지 못했다거나 일이 아주 힘들게 마무리 될 때는 스스로에 대해 실망도 합니다. 하지만 월간지의 특성상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호를 준비해야 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힘들게 취재하고 고생하며 쓴 기사가 책으로 나올 때가 가장 기다려지고 보람을 느낄 때입니다.

그 때 이랬더라면 더 나왔을 텐데...라든가 취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책을 보기도 하고, 한달 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게 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꼬망세>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갈 때 '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 참 행복합니다.

1. 쉬는 날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마감 때는 주로 사무실에 나와서 원고를 쓰고 교정보느라 정신이 없지요. 보통 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수다도 떨고, 가끔 영화도 보고... 그리고 <꼬망세>편집부 식구들이랑 자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마감이 끝나면 한꺼번에 몰아서 밀린 잠을 잡니다.

1. 상견지만 쓸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옆자리 기자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 듣고 무척 웃었거든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손오공이랑 삼장법사랑 저팔계랑 사오정이 새우깡 CF콘테스트에 나갔대요. 다들 분위기를 가다듬고 한 소절씩 노래를 불렀죠.

삼장법사 :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손오공 :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저팔계 :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그러자 순서가 된 사오정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사오정 : 잔초뿐이야, 우우우~

1. 그럼 기자가 보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나보신 보육교사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꼬망세>를 통해서 유아교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아이들을 교육하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참 대단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단순하게 직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아이들 하나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만큼 유아교사들의 어깨는 무거워질거라 생각합니다.

교사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아이들의 욕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아이들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1. 일년동안 취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이번 호에 제가 스페셜인터뷰를 한 분인데, 지구촌민속박물관 박희문관장님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은 평생을 통해 수집하신 세계 각국의 유물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을 개관하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인생을 걸고 매진할 수 있는 열정이 보기 좋았고, 무엇보다 개인의 만족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을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1. 에피소드도 많았을텐데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주시겠어요.

<꼬망세>라는 이름이 프랑스어로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꼬망세>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대부분 <꼬망세>로 알고 계시고, 한번은 편집부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꼬망세>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심지어는 <꼬들레망>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주로 이점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꼬망세>입니다.!!

1. 사람이나 사건을 취재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게 무엇인가요?

책 내용 중에 유아교육기관을 탐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원장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주로 원장님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을 많이 여쭙보지요. 기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뉴스의 경우는 사실을 전달하고, 정보성 기사의 경우는 정보자체의 전달에 충실해지려고 노력합니다.

1. 한국보육교사외에서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아시죠. 보육교사들이 만드는 잡지로서 어떠한지요? 날카로운 비평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잡지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보육에 대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보신 교사들이 보육(계)에 대한 정보라든가 활동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육교사'라는 단단한 끈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공감대를 <우리네 아이들>이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보육교사회 주체로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에게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유아교육계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텐데요. 일년동안 느낀 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 어느새 일년을 마감할 때가 되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아교육에 있어 그 본질은 아이들이니까 가장 아이들을 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들에게도 한마디!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일을 아무나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보육교사 여러분들을 책임감과 사명감, 때로는 그로 인해 힘이 드신 부분도 많았지요. 저희가 대신해서 보육교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그동안 해오신 대로 열심히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참... 저도 (자료)회원인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분들 화!이!팅! 하세요.



박물관 활용교육의 입문

이예영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1. 동기

작년 봄에 서점에서 책구경하던 중 <박물관학교 만들기/강성혜, 문음사>라는 제목의 새책 한 권이 눈에 번쩍 띄었다. 평소 박물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 관련도서라길래 몇 장 펼쳐들었다니 내용에 빠져 냉큼 사들고 집에 와서 부지런히 읽어내려갔다. <박물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직접 체험하면서 쓴 책이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테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책을 접한 계기로 박물관교육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과연 박물관이 몇 개나 있을까? 특히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박물관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즈음에 신문, 잡지, 기사의 문화면에 이색박물관, 생활속의 박물관,..... 등 다양한 제목이 붙은 박물관 소개 시리즈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알고보니 소규모의 전문 박물관들이 전국 곳곳에 속속 들어서고 기존의 박물관들은 종종 기획전시를 열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고리타분한 인상을 조금씩 바꾸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듯 어느새 박물관은 생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정작 교육기관은 가끔 박물관을 드나들며 눈요기하는데 그친다.

국내의 유아교육 관련자료에서 박물관교육이 언급된 정도를 살펴보면 있으나 현장 견학지도영역에서 견학코스의 하나로 박물관을 포함하고 일반견학지침을 제시하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관은 박물관에 견학갈때 각종 박물관의 전시내용과 위치, 교통편 등을 설명한 시설 안내용 책자를 참고로 활용하는데 불과하다. 다만 유아의 박물관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계간지 '아침햇살(1996년 겨울호)'에 실린 이경희의 <어린이박물관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4차례에 걸쳐 '박물관 활용교육' 강좌를 열었습니다. 박물관 활용 교육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번 강좌의 강의를 해주신 이혜영선생님이 본지 독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원고를 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록으로 전국의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발견했다.(이는 국내에 한 곳 밖에 없는 어린이전용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룬 자료라 활용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 어린이교육에 관심있는 필자로서는 당연히 '유아기에 적합한 박물관교육'은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2. 박물관에 대해

1) 박물관의 정의

국제박물관회의(ICOM)에서 "박물관이란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전달, 전시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려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의 범위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종합박물관을 비롯하여 전문박물관, 미술관까지 포함한다.

2)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황

우리나라의 전체 박물관 숫자는 국·공·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모두 합하여 총 211개(1997년 기준)이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전체 박물관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라 지역간에 편차가 크다. 주로 198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기는 박물관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소규모의 전문박물관들은 일반인은 물론 그 지역주민에게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물관을 주제별로 살펴볼 때, 역사계박물관이 50%이상이고 미술관, 민속박물관, 과학, 기술박물관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부족한 영역은 자연사박물관이다.

3) 박물관의 교육기능

박물관의 기능으로 수집,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은 유물보존과 전시를 수행하는데 급급했다.

박물관의 교육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교육계에서는 문화교육, 현장체험교육 내용의



한 가지로 박물관교육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미 일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박물관 자체나 사설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들로 교육대상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박물관교육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평생교육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유아과학교육에서 박물관을 활용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유아교육개론, 이윤옥 외 2인 옮김, 창지사)

이처럼 선진국의 박물관교육은 우리보다 박물관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어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린이교육에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박물관 교육의 특성

박물관은 발견과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장으로서 수집품과 전시물을 직접 보고 조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실물체험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역사,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과 마주치므로 과거와 현재 속으로 여행하는 느낌을 맛보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받아 아이디어도 얻고 새로운 표현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부록- 박물관 소개

□ 서울시

우정박물관(중구 충무로)

- ▶ 우리 나라의 우편제도에 관련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공휴일은 휴관) ☎ 02)756-2858
- ▶ 관람료 : 무료

이화정(梨花莊)(종로구 이화동)

- ▶ 고 이승만 박사의 사택. 우리 나라 건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오후 5시(연중무휴) ☎ 02)745-0758
- ▶ 관람료 : 무료

용기민속박물관(도봉구 상문동)

- ▶ 용기와 용기 이외의 민속자료들 1만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은 휴관) ☎ 02)900-0399
- ▶ 관람료 : 어른 2000원, 학생 1000원

육군박물관(노원구 공릉동)

- ▶ 국산기념물과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2시 두차례(월요일은 휴관) ☎ 02)970-2471,2571
- ▶ 관람료 : 어른 2000원, 학생 1000원, 외국인 3000원

현대의상박물관(중구 남산동)

- ▶ 우리 나라 현대의상의 역사를 담고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오후 4시(화요일과 목요일에만 개관) ☎ 02)319-5497
- ▶ 관람료 : 어른 2000원, 학생 1000원

잡지박물관(종로구 청진동)

- ▶ 우리 나라 최초의 잡지를 비롯한 5000여 종의 잡지가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두차례(공휴일은 휴관) ☎ 02)735-9464
- ▶ 관람료 : 무료

조금금융박물관(중구 태평로 1가)

- ▶ 고대 원시금융에서 현대 첨단금융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금융 발전사를 전시해 놓았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4시30분 (공휴일은 휴관) ☎ 02)738-6806
- ▶ 관람료 : 무료

농업박물관(서대문구 농업중앙회)

- ▶ 우리 나라 5000여년의 농업사가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공휴일은 휴관) ☎ 02)397-5673
- ▶ 관람료 : 무료

국악박물관(서초구 예술의전당)

- ▶ 국악기와 국악의 역사, 국악인에 관련한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은 휴관) ☎ 02)580-3070
- ▶ 관람료 : 무료





본재연구소(서초구 우면동)

- ▶ 분재 1만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7시 (동절기엔 오전10시~오후 5시, 공휴일은 휴관) ☎ 02)970-2471.2571
- ▶ 관람료 : 무료

외교박물관(서초구 양재동)

- ▶ 우리나라가 개방된 이후부터 외교의 역사에 관련한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있다.
- ▶ 이용안내 : 오전9시~오후5시(공휴일은 휴관, 토요일은 격주 휴무, 신분증 지참 요) ☎ 02)571-1097
- ▶ 관람료 : 무료

산악박물관(강남구 역삼동)

- ▶ 각종 등산장비의 전시, 각종 잡지와 산 슬라이드를 갖추고 있는 자료실 등에서 50년 한국 등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공휴일은 휴관) ☎ 02)588-3331
- ▶ 관람료 : 무료

자수박물관(강남구 논현동)

- ▶ 2,400여 점의 자수가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4시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 ☎ 02)970-2471.2571
- ▶ 관람료 : 무료

짚·풀생활사박물관(강남구 청담동)

- ▶ 짚과 풀을 이용한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월요일은 휴관) ☎ 02)516-5585
- ▶ 관람료 : 어른 2000원, 학생 1000원, 노인 무료

삼성어린이박물관(송파구 신천동)

- ▶ 어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신체표현과 도전·인체탐험·과학탐구·어린이방송국·멀티미디어탐구·자유표현·사회와 문화비교·또래끼리 등의 8개의 전시영역이 준비되어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은 휴관) ☎ 02)424-5864~7(교환 5312)
- ▶ 관람료 : 어른 4000원, 학생 2000원 (단체할인)

한국필름보관소(서초구 서초동)

- ▶ 2700편의 필름이 보관되어 있으며 관람이 가능하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30분~ 오후 5시 (공휴일은 휴관) ☎ 02)521-3147
- ▶ 관람료 : 자료열람 200원, 토요일화제(오후2시), 관람 1000원

동덕여대박물관(여성사박물관)

- ▶ 여성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30분~ 오후 4시 (토.일은 휴관) ☎ 02)940-4231
- ▶ 관람료 : 무료

경기도

덕포진 교육박물관(김포군 대곶면)

- ▶ 수십년 전의 교과서, 학교 비품과 교재, 전통 가구와 농기구 등 4000여 점의 전시물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6시 (공휴일은 휴관) ☎ 0341)989-8580
- ▶ 관람료 : 어른 1000원, 학생 800원, 단체 700원

인천시립박물관(연수구 옥련동)

- ▶ 개화기의 물품과 인천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물, 고려 청자와 조선백자 등도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 휴관) ☎ 032)832-2570
- ▶ 관람료 : 학생노인 무료, 어른 220원, 군경110원

충남박물관(고양시 고양동)

- ▶ 충남의 지역의 마야와 임카, 아즈테카 문명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 ▶ 이용안내 : 토.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평일은 예약 후 단체만 받는다) ☎ 0344)62-9291
- ▶ 관람료 : 어른 20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산림박물관(포천군 소흘읍)

- ▶ 수천만년전의 동식물 화석, 곤충 표본, 각종 산림관계자료를 볼 수 있다. 320종에 달하는 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맹인을 위한 맹인식물원도 갖추고 있다.
- ▶ 이용안내 : 월~금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단 자연학습·교육·학술연구 목적으로 탐방 희망한 자료 10일 전에 사전예약을 한 단체 또는 개인) ☎ 0357)31-3894





- ▶ 관람료 : 어른 700원, 학생 500원, 4세 이상 어린이 300원

철도박물관(의왕시 일암동)

- ▶ 우리 철도역사 100년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설날·신정·추석,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 ☎ 0343)61-3610
- ▶ 관람료 : 일반 500원, 학생 300원, 65세 이상 노인과 취학 전 아동은 무료

크리스탈전시관(광주읍 승정리)

- ▶ 모래가 크리스탈로 변하기까지의 생산 과정 및 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5시30분 (토, 일요일은 오후 3시) ☎ 0347)61-4010
- ▶ 관람료 : 무료

마사박물관(과천시 경마장내)

- ▶ 우리민족의 우수한 말 문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2)509-1283~4
- ▶ 관람료 : 경마가 있는 날 200원, 평일무료

태평양박물관(용인시 기흥읍)

- ▶ 각종 화장용기와 화장품 제조용구·장신구 등의 여성 생활용품 등 1500여 점이 보유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5시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공휴일은 휴관) ☎ 0331)285-7215
- ▶ 관람료 : 무료

□ 강원

참소리축음기박물관(강릉시 승정동)

- ▶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부터 최신형 오디오까지 1600개의 축음기를 전시하고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30분 (연중무휴) ☎ 0391)43-1198
- ▶ 관람료 : 어른 3500원, 학생 2500원, 어린이 1500원

대관령박물관(강릉시 선산면)

- ▶ 1500여점의 선사유물, 불교미술품, 민속자료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391)41-9801

- ▶ 관람료 : 어른 2500원, 청소년·군경 1500원, 어린이·노인 500원, 단체 700원

강원민속박물관(원성군 청일면)

- ▶ 조선시대의 방안풍경,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한 민속품과 자료, 골동품, 오래된 고물을 전시하고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 0372)42-2331
- ▶ 관람료 : 어른 25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선교장박물관(강릉시 운정동)

- ▶ 18세기초에 만들어진 민가로 조선시대의 세간살이·식생활용구·서화들이 제작되어 전시되고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391)40-4543
- ▶ 관람료 : 어른 1000원, 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

스키박물관(고성군 간성읍 알프스 스키장내)

- ▶ 한국 스키역사에 대한 자료, 스키의 제작과정 등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392)681-5030~5
- ▶ 관람료 : 어른 1100원, 어린이 550원(단체할인)

□ 충청도

화폐박물관(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내)

- ▶ 원시시대 화폐에서 오늘날 쓰이는 화폐까지 4000여 점의 화폐가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 ☎ 042)870-1000
- ▶ 관람료 : 무료

충남전기통신박물관(대전시 중구 산성동 남대전전화국 3층)

- ▶ 우리나라 전기 통신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공휴일은 휴관) ☎ 042)582-0800
- ▶ 관람료 : 무료

건양대 협박물관(충남 논산군 건양대학교)

- ▶ 아무추어 무선통신의 역사를 모아놓은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 ☎ 0461)30-5114





▶ 관람료 : 무료

공주민속극박물관(충남 공주시의당면)

- ▶ 우리 나라의 전통적 인형극과 탈놀이에 쓰이는 인형·탈 그리고 극에 쓰이는 악기와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은 휴관) ☎ 0416)55-4933
- ▶ 관람료 : 일반 10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600원, 노인무료 (단체할인)

한서도시관(충남 서천군 한산면)

- ▶ 모시에 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459)951-4100
- ▶ 관람료 : 무료

고인쇄박물관(충북 청주시운전동)

- ▶ 우리나라 인쇄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 0431)69-0556
- ▶ 관람료 : 어른 330원, 학생 160원, 어린이 110원

□ 경상도

건물바우박물관(대구시 중구 대명2동)

- ▶ 우리의 옛 민속신앙을 볼 수 있는 무속박물관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월요일은 휴관) ☎ 053)421-6677
- ▶ 관람료 : 일반 500원, 학생 300원

아외탈박물관(안동시 풍천면 아외리)

- ▶ 하회탈, 봉산탈과 외국의 유명탈 등 250점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6시 ☎ 0571)53-2288, 2938
- ▶ 관람료 : 일반 1000원, 어린이 600원

경보와석박물관(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 ▶ 화석 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7시 (주말, 공휴일은 8시까지, 매월 2·4주 월요일은 휴관) ☎ 0564)32-8655
- ▶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노인무료

장기갑 등대박물관(포항시 남구 대보면)

- ▶ 각종 등대모형과 출판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562)84-4857
- ▶ 관람료 : 무료

태정민속박물관(진주시본성동)

- ▶ 우리나라 전통가구에 붙어있던 각종 장식품 20여 만개를 모아 놓은 장식박물관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30분~ 오후 6시 (일요일 오전만 휴관) ☎ 0591)745-3020
- ▶ 관람료 :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 초등학교생 500원

□ 전라

도자기 민속박물관(부안군 보안면)

- ▶ 토기,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현대자기, 각종 민속품과 고서등의 전시물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5시 (토요일은 1시까지, 공휴일은 휴관) ☎ 0683)82-3006
- ▶ 관람료 : 무료

죽물박물관(담양군 담양읍)

- ▶ 대나무생활용품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 ☎ 0684)80-3358
- ▶ 관람료 : 어른 300원, 어린이 200원

카메라박물관(나주시대호동)

- ▶ 300여대의 카메라가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토·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 월요일은 휴관) ☎ 0613)30-3827
- ▶ 관람료 : 무료

조개전시관(목포시 용매동)

- ▶ 다양한 종류의 조개가 전시되어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월요일은 휴관) ☎ 0631)76-6331
- ▶ 관람료 :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600원





진도 문화예술평화전시관(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 ▶ 진도의 독특한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632)544-2098
- ▶ 관람료 :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소방유물관(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 소방서내)

- ▶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소방물품이 전시되어 소방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공휴일은 휴관) ☎ 0652)250-4244
- ▶ 관람료 : 무료

배(梨)박물관(나주시 석천리)

- ▶ 배의 역사적 유래와 변천과정을 볼 수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631)31-5038
- ▶ 관람료 : 무료

동진수리민속박물관(김제시 요촌동)

- ▶ 옛 수리시설과 농경·생활용구·민속자료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5시 (공휴일은 휴관) ☎ 0658)547-3121
- ▶ 관람료 : 무료

□ 제주도

제주민속박물관(제주시 삼양동)

- ▶ 제주의 서민적인 민속품 등을 모아 놓았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64)55-1976, 4427
- ▶ 관람료 : 일반 1000원, 초등학생 500원

야구박물관(북제주군 애월읍 아귀리 가문동)

- ▶ 일본과 우리 나라 야구 선수들로부터 받은 각종 야구 기념품을 모아 놓았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64)99-6009
- ▶ 관람료 : 무료

제주 자연사박물관(제주시 일도 2동)

- ▶ 광물·식물·동물 등은 물론 제주도 특유의 민속유물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명절은 휴관) ☎ 064)22-1588, 53-8771
- ▶ 관람료 : 어른 770원, 청소년 330원

제주 교육박물관(제주시 이도2동)

- ▶ 제주도교육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10시~ 오후 6시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 ☎ 064)52-9102
- ▶ 관람료 : 무료

중문민속박물관(서귀포시 중문동)

- ▶ 옛 어촌을 재현하고 있으며 농·어기구, 일상용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연중무휴) ☎ 064)38-5511
- ▶ 관람료 : 어른 1320원, 어린이 670원

탐라박물관(서귀포시 색달동)

- ▶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교한 조각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 ▶ 이용안내 : 오전 9시~ 오후 6시 (설날·추석 휴관) ☎ 064)38-1181~2
- ▶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800원





소아비만에 대하여

고시환 · 단국대학교 소아과학교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아비만증 발생빈도가 꾸준히 늘어나 최근에는 아동의 비만율이 구미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비만은 비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조사에 의하면 영아가 소아기-청소년기-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 번 비만증을 보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증을 보일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비만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아기부터 비만예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만증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과다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식생활 개선과 적당한 운동이야말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이밖에 아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적 원인이 있을 지 모른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신적·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비만이 발생하거나 촉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아비만의 꾸준한 증가

비만은 오늘날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보건상의 문제점들 중 하나이다. 서울시내 초, 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남아의 비만증 빈도가 1984년에 9%에서 1994년에 19%로, 여아의 경우 7%에서 16%로 증가하여 10년만에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비만율이 미국 20%, 스웨덴 20~25%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소아 비만증의 발생빈도가 구미 선진국의 빈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아과 외래에 비만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수나,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중 비만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는 20% 미만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과 의사가 비만을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비만을 해결이 어려운 질환으로 포기해 버리며, 영양이나 운동, 행동교정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방법이 부족하고, 치료와 추적관찰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다는 점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아비만의 많은 경우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며, 비만으로



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유병률이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소아비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비만은 체내에 지방조직 특이 피하지방조직이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상적 체지방량은 남자: 15.8+/-7.39 %, 여자: 26.0+/-5.52 % 지방세포는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세포이다. 과잉의 에너지는 지방세포에서 동화되어 triglyceride의 형태로 저장되며, 지방세포는 에너지 저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경을 20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 비만의 진단 〉

● 비만의 평가

일반적으로 비만의 진단은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만이 아닌데도 체질량 (lean body mass)이 많이 나가서 비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비만으로 보이지 않지만 체지방이 과다하여 비만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계측을 통해 과체중의 정도와 체지방을 산정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번째 단계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한국 소아의 발육 곡선상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지 결정하며, 한국 소아의 신장별 체중 백분위표에서 신장별 표준체중 (median weight)과 실제 체중을 비교한다.

비만도 =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x 100

20% 이상 비만, 20-30% 경도 비만, 30-50% 중등도 비만, 50% 이상 고도비만

일반적으로 소아비만은 체중이 신장별 체중 백분위표에서 90백분위수 이상이거나, 신장별 표준체중의 120% 이상일 경우로 정의되며, 과비만 (superobesity)은 신장별 체중이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신장별 표준체중의 140% 이상일 경우로 정의된다. 이때 부모와 형제들의 신장과 체중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아(6세-10세) 비만과 청소년(11세-21세), 성인 비만을 정의하는 데에는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의 사용이 권장된다. BMI는 체지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체중 (kg)을 신장의 제곱 (m²)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6세 이상의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은 BMI가 같은 성별과 연령에서 95백분위수 이상일 경우로 정의되며, 85-95백분위수 사이일 경우 비만의 고위험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BMI에 의한 비만의 진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Ponderal index (kg/m³)가 85백분위수 이상일 때 비만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Body mass index(BMI, 체질량 지수) = 체중(kg) / [신장(m)]² : 주로 성인에서 이용된다.

20-25 : 정상, 25-30 : 과체중, 30이상 비만



피부주름 두께 (skinfold thickness)의 측정은 체지방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와 체질량의 과다로 비만으로 보이는 경우를 쉽게 감별할 수 있다. caliper를 이용하여 삼두근, 이두근, 겨드랑이, 복부 중앙, 견갑밑, 장골위 부위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삼두근 부위의 측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같은 연령, 성별에서 피부주름 두께가 85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 95백분위수 이상이면 과비만으로 정의된다. 삼두근과 이두근 부위의 피부주름 두께는 사지비만을, 겨드랑이, 복부 중앙, 견갑밑과 장골위 부위의 피부주름 두께는 중심비만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허리와 둔부의 둘레비는 체지방의 분포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허리와 둔부의 둘레비가 증가된 중심형 비만 (성인여자에서 0.9 이상, 성인남자에서 1.0 이상)에서는 사지형 비만 (성인여자에서 0.75 이하, 성인남자에서 0.85 이하)에 비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소아에서는 중심형 비만을 평가할 때 허리와 둔부의 둘레비보다는 체간의 피부주름 두께와 허리 둘레 측정이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외에도 bioelectric impedance를 이용하여 체지방의 분포를 측정하거나,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복부내 지방과 복부 피하조직내 지방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나, 소아과 외래에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Waist-Hip Ratio

허리둘레는 마지막 늑골 하단과 제대 상방의 가장 짧은 둘레를 측정 둔부 둘레는 물출부의 가장 긴 둘레를 측정한다.

정상 : 남자 0.8-1.0, 여자 0.7-0.85

사과형 비만

주로 상체에 지방이 축적된 중심성 비만증, 남성형 비만이라고도 칭한다.

성인병 이환율이 높다.

서양배(pear)형 비만

둔부나 사지에 주로 비만이 축적된 말포성 비만증,

운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 흔하고, 여성형(gynoid) 비만이라고도 칭함.

성인병의 이환율이 비교적 낮다.

소아비만의 가장 위험한 시기

소아에게 비만이 오기 가장 쉬운 시기는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영아기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기이다. 영아기와 청소년기는 체내의 지방이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시절 비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45%가 영아일 때부터 비만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비만하였던 소아의 약 50%는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비만아로 남아 있었다. 또한 40년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한 보고를 보면 9~13세 사이에 비만증을 보인 청소년들 중 약 60%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증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비만의 발생원인

그렇다면 비만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비만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 대하여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로 소모하는 열량보다 섭취하는 영양이 더 많을 때 지방세포수가 증식하고 이에 인슐린(용어설명 참조)이 증식된 지방세포를 비대하게 하여 비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비만은 크게 특정한 질환없이 단지 에너지의 과잉 섭취에 의한 단순성 비만과 비만을 초래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어떠한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후성 비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증후성 비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에 따라 내분비성 비만, 유전성 비만, 증후성 비만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듯 비만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외형적인 비만에 관점을 두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소아 비만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후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비만 아동을 관찰해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원인과 더불어 많은 환경인자가 영향을 끼치고, 중추신경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지방을 축적시킴으로써 비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운동과 식생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비만과 유전의 관계

비만이 유전과 관계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아직 비만을 발생시키는 유전인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어떤 가족의 경우 비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만이 되기 쉬운 어떤 이 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여기에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만경향이 높은 가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부모가 모두 비만일 경우 그 자손들의 비만 발생률은 매우 높다.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비만이 비만을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비만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비만의 발생 기재(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칼로리의 섭취와 소모가 얼마나 균형있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많으면, 남은 칼로리로 인해 지방이 축적되어 체중이 늘고 비만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비만 아동을 잘 관찰해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약 80% 가량이 다식(多食), 즉 많



이 먹는 것에 의한 비만이였다. 마찬가지로 영아기에는 우유의 과다 섭취가 과다한 체중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obes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obesity' = 'ob' + 'edere' = 'overeat'로서 'overeate', 즉 과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많이 먹는 것과 더불어 운동량의 부족도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비만 어린이나 성인들의 운동량이 적다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물론 가족적 및 유전적 측면에서 생각하여 보자. 아직 단일 유전인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비만을 초래하는 다원성 유전인자(용어설명 참조)가 비만에 관여하리라 생각되고 있다.

부모와 그 자녀의 비만관계에 관한 조사 결과, 양친이 다 말랐을 때 그 자녀가 비만이 되는 경우는 약 14%라고 보고되고 있다. 만약 부모중 한 사람이 비만일 때 그 자녀가 비만이 되는 경우는 40%, 부모 모두가 비만일 때 그 자녀가 비만이 되는 경우는 80%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유전인자와 가족적 환경이 아마도 관계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문제이다.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식생활 문화는 달라질 수 있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어떤 가족이 평소 과식을 자주 한다거나 운동부족을 초래하는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면 비만 발생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정신적·심리적 요인으로 소아에게 비만증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청소년기에 어떤 정신적·심리적 타격을 받고나서 비만증이 올 수 있다. 엄마와 헤어져서 생활해야 한다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 열등감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의 아동들은 심리적·정신적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과식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비만증을 초래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내분비성 대사 이상에 의한 비만의 경우다. 내분비 질환, 즉 호르몬의 결핍 또는 과다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상의 여러가지 장애로 인해 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

비만에 관련된 병적 소견

비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이상에 관련된 병적 소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자신의 용모에 대한 열등감, 우울감, 자신감의 결여, 소극적이고 비사회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사춘기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며 때로는 사회에서 고용차별이라는 냉대를 받게 되기도 한다.

또 비만증은 성인병의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당뇨병, 동맥경화성 심질환, 고혈압, 뇌졸중, 골·관절질환, 간담낭질환 등에 걸릴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50% 이상의 과체중을 가진 사람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내지 2배나 많다고 한다.

비만증은 간기능에도 지장을 주고 지방간을 동반하기도 한다. 비만과 당뇨병의 관계도 매



우 커서 성인성 당뇨병의 발병률은 비만이 없는 사람에 비해 10배나 높다. 비만증은 또한 호흡계에도 지장을 주고 심하면 만성 산혈증(용어설명 참조)을 일으켜 폐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비만증 극복을 위한 원칙

위에서 지적한대로 비만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문제, 식생활 등의 사회·문화적 문제에도 정서·심리·정신적 문제 등의 복잡한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개인의 핵심문제점을 파악하여 비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비만증 관리의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증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비만증을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2. 비만의 정도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굳은 의지와 함께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3. 각 가정에서 평소 즐기는 음식에 대한 기호를 바꾸지 않되, 영양섭취면에서 단백질 식품을 늘리고 당질계 식품을 멀리한다.
4.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다.
5. 욕구불만,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정신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6. 사회환경문제의 해결 등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다.

비만증 치료를 위한 식생활 개선법

어린이들에게 비만을 초래하는 식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 ①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다.
- ② 간식이나 밥참이 많다.
- ③ 당분과 지방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다.
- ④ 인스턴트 식품과 스낵식품을 즐겨 먹는다.
- ⑤ 식물성 섬유 섭취가 부족하다.
- ⑥ 식염 섭취가 많다.
- ⑦ 편식이 심하다.
- ⑧ 육류·닭고기를 많이 먹고 생선 섭취를 적게 한다.
- ⑨ 칼슘이 부족하다.
- ⑩ 비타민 B2 섭취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식생활을 바람직스럽게 고치지 않고서는 비만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식생활의 개선이야말로 비만증 치료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비만증 치료에는 꾸준한 노력과 많은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모나 담당의 사도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장은수 옮김/ 비룡소/7,000원



오윤정 · 본회 서울지부장

이 그림책 표지에는 깊은밤 여자 아이와 고릴라와 나무가 매달려 즐거워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자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림책입니다. 그것도 고릴라와 함께 나옵니다.

표지를 넘기면 한나가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이 작은 화면으로 왼쪽에 나타나고, 오른쪽 화면에는 정면으로 신문보는 아빠와 그 앞에 앉아 있는 한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아빠가 마시는 커피 한 잔과 한나 몫의 우유, 그리고 콘후레이크가 있을 뿐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색은 하늘색, 청색 톤으로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글을 보면 한나는 고릴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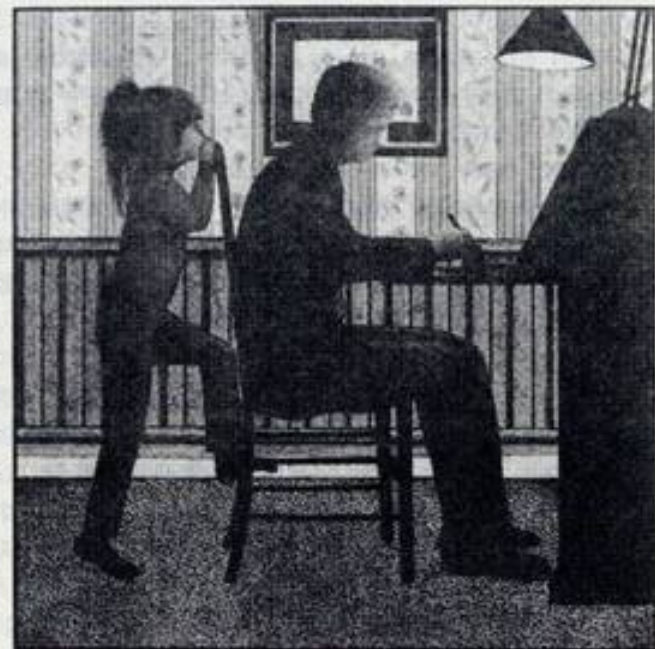
무척 좋아하는데, 아직 진짜 고릴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빠는 한나랑 동물원에 갈 시간이 없었대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았대요. 그 다음장을 넘기면 아빠가 회사로 출근하는 그림이 작은 화면으로 왼쪽에, 돌아와서 또 일하시는 장면이 오른쪽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달려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쳐다보는 한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소개하면, 아, 바쁜 아빠와 딸의 이야기인가보다 하고 아실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쁜 아빠가 한나에게 생일선물로 고릴라 인형을 사주셨어요. 한나는 물론 진짜 고릴라가 갖고 싶었지요. 그날 밤 굉장한 일이 일어났지요. 고릴라가 글썽 진짜 고릴라가 된 것이지요. 그날 밤, 고릴라는 아빠 옷을 입고 한나와 나무를 타면서 동물원에 갔답니다. 고릴라도 구경하고 슈퍼 고릴라가 출현하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앞 잔디밭에서 고릴라와 한나는 춤도 추었어요. 그 다음날 한나는 어제밤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말하려 아래층으로 내려 갔는데 아빠는 말했어요. "생일 축하한다. 우리 귀염둥이, 동물원에 가고 싶었지" 한나는 무척 행복했어요.

이 그림책은 언제나 바쁜 아빠,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가 아이의 상상속에서 사기가 좋아하는 고릴라로 바뀌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고릴라와 아이는 지냅니다. 이 그림책의 칭찬할 점은 약간의 미묘해 보일 수 있는 즉, 꿈으로 표현되는 환타지 내용을 그림으로 잘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아주 아름답고, 아이의 심정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림을 보면서 보는 이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꼭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왼쪽 작은 화면과 오른쪽 큰 화면으로 처리한 것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림의 색조와 어두움과 밝음을 잘 이용하여 그림에서 어떤 느낌이 전달됩니다. 한 예로 한나가 혼자 간식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의 그림을 보십시오.

텔레비전 화면 앞에만 불빛이 있을 뿐 나머지는 캄캄한 곳의 벽지는 마치 과일처럼 느껴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빠들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아빠 그리고 여자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엄마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릴라가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아마 이 그림책이 만들어질때 키크가 유행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1983년 작품)



발도르프교육의 꽃인 오이뤼트미 공연을 보고

임미란 · 동그라미 놀이방

나는 예술에 문외한인 사람이다.

그러나 보육현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예술적인 자질들을 발휘시켜 주고 싶고 또 높고 문한 몸을 가진 이 몸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난 올 가을 '자유'란 것들과 싸웠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것들의 자유로움에 대한 최대 예술로 불리워지는 발도르프 교육의 오이뤼트미는 대단한 궁금증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다.

나는 오이뤼트미에 대한 사전 지식은 거의 없다.

단지 전에 보육교사회에서 주최한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그곳의 아이들은 오이뤼트미라는 표현예술활동을 통해 감성교육을 받는다는 단지 그것 하나뿐.

그래서 그쪽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과 우리의 보육현장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2만원이라는 공연료를 기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갔다.

허름지붕 달려간 연세대의 공연장은 시골벽적, 와! 정말 기대되네.

공연은 술도 쉬지 못할 만큼 조용한 가운데서 거의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배경 음악들은 주로 아주 섬세하고 기운찬 슈베르트곡이나 그런 종류들로 채워지고 무대조명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오묘한 빛들과 그리고 현지에서 날아온(?) 공연단들의 나비같이 하늘거리는 의상들과 아주 섬세한 음악들 속에서 그들의 온몸은 언어의 생동감으로 가득차고 아주 미세한 음과 소리들까지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 감정들로 표현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단원들은 모두 가지각색의 나이와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들 환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백발의 중년아저씨의 혈기왕성한 표현들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동극 공연은 한사람이 동화를 읽듯이 감정을 넣어 읽고 그리고 단원들은 스토리를 흡같은 동작으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속에서도 유머스러움들을 갖추어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나는 공연을 보면서 함께 취하고 싶었다.

우리 안에서 억눌리고 있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들이 불처럼 타올라 함께 무대에 올라가 눈을 감고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두근거림으로 몸을 가눌 길이 없었다.

나는 오늘 내가 예술에 무식한 한 보육교사로써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을 무지 좋아하지만 아직은 그리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써 나의 느낌을 적어보려 한다.

발도르프 교육쪽에서는 오이뤼트미를 체조나 일반 무용처럼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여 춤추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차원을 끌어올려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즉 음이나 단어를 단지 몸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절이나 음의 소절에서 지배적인 소리를 팔과 다리등 몸

전체를 사용하여 고유한 동작을 통해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감각적으로 온몸으로 소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또 대단해 보였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나의 기대와는 사실 다른 것이어서 실망을 한 것인데 사실 나는 이런 음악과 소리 등을 통한 감각의 발전과 사고의 자유로움을 통해 아주 자기만의 주체적인 자기 표현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이뤼트미의 표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음과 소리들의 단련을 통해 감각을 발전시켜 만들어낸 법칙 같은 것인데 난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실제 공연에서도 그런 틀을 발전할 수 있었고 또 나 같으면 더욱 감하게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곳도 있어서 어쩌면 이 예술은 마치 농아들이 그들의 어려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수화나 이런 것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법칙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아니 나의, 진정한 창의성과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스러움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할 것인가?

이 공연을 보고 내가 든 생각은 아! 이렇게 민초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는 힘이 드는 모양이로구나. 하는 느낌인데 슈타이너는 이 발도르프교육을 21세기 최초의 교육이라고 했다 한다.

그래 그렇구만, 음...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그런 감수성과 예술적인 부분들에 얼마나 굶주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모두 공감할 할 것이다. 어쩌면 사실 오이뤼트미는 그런 굶어버린 인간들을 위해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과하고 어려운 오이뤼트미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도입할 수가 있는 말인가? 그건 보육교사인 나도 쉽게 감이 오지를 않는다.

하나 그래도 얻은 것은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표현과 동작활동을 하면서 감정만을 요구하면서 무시하기 쉬운 소리와 음들에 대한 감각과 표현부분들을 더 신경써야겠다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들에 취해서 표현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하늘거리는 천조가리 통이라도 있다면 훨씬 동화되는게 쉬울 듯하다는 구체적인 것이다.

나는 오늘 이글을 쓰면서 무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이뤼트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겐 힘들게 다가왔다. 하지만 난 나의 이런 느낌들을 이야기기해보고 싶었다.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독자분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한수 배우고 싶다.

아직도 무식한 교육현장과 조건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모두 우리의 것들로 만들기 위한 지난한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유빈이가 부쩍 자랐어요

나은미 · 고양, 오손도손애기반 교사

"엄마, 유빈이가 도와주니까 하나도 안힘들지?" 전에는 온몸 어질러진 집안을 엄마가 치우고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유빈아, 이것 좀 제자리에 갖다 놓래?" 하면 이리저리 피해 뒹굴면서 "유빈이 지금 뭐해?", "힘들어" 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엄마가 방을 치우면 어느새 달려와 종종걸음으로 이것저것 가져다 놓으며 엄마를 도와주며 즐거워 합니다. "유빈이가 도와 주니까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기분 좋아?" "응, 기분 최고야"

놀이방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 방안에 누워 있으면, "엄마, 뭐 먹을까?" 하다가도 "엄마가 아프니까 조금 있다가"하면 "유빈이가 안마 해줄게"하며 어깨를 주무르고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배먹지 않는 한마디, "엄마, 시원해?"

지난 일요일, 엄마는 친구들과 모임에 혼자 갔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게 붙어다니던 유빈이 때문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 혼자 외출 준비를 하고 "유빈아, 엄마밖에 잠깐 나갔다 올게" 했더니, "응, 갔다와, 안올고 있을게"합니다. 불에 보포를 하고, 손을 흔들고 문을 닫고 나온 순간 들이마신 찬바람이 왜 그렇게 상쾌하던지, 여섯 시간만에 돌아와 보니 유빈이는 아빠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엄마를 보자마자 "유빈이 안올었어, 아빠랑 놀고 있었어"합니다.

친구나 외가에 놀러가도 전처럼 엄마 옆에 붙어 앉아 누가 안아보려고 해도 쌀쌀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집에서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깔깔대고 좋아합니다. "엄마랑 놀 같이 있고 어른들과 접촉이 없어서 그러니까요"하면서도 어른들께 민망했었는데 한시를 덜었습니다.

혼자 놀다가 엄마랑 눈이 마주치면 살그머니

다가앉아 "엄마는 예뻐"하며 끌어 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지만 엄마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동안 아빠를 멀리하는 바람에 둘 사이에 갇힌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것도 한때러니 하면서도 이제 커서 아빠를 잘 따르게 될까 했는데 지금은 그때가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달라졌답니다. 저녁때가 되면 "아빠가 왜 안오지?"하며 기다립니다.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활기를 되찾아 소리를 지르고 좋아합니다. 아빠랑 노는게 좋은지 밤늦도록 떠들니다. 욕욕도 아빠랑 잡자리에 눕는 것도 아빠랑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빠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틈만나면 배꼽을 만지던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한동안 너무 심하게 만지작거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일 내일에 네 살이지."하는 유빈이. 나이만 그냥 먹는게 아니라 생각 또한 깊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새삼스레 자식을 키우는 보람을 느낍니다.

못다 쓴 이야기

엄마와 아빠 사이에 눕는 유빈이에게 "동생이 생기려면 유빈이 자리에서 자야지."라고 몇 번 그랬더니 어느날에는 "동생 있었으면 좋겠니?"라고 묻는 아빠에게 말하길 "싫어, 동생은 싫어."

생맥주를 마시는 엄마 옆에서 사이다를 몇 모금 마시며 놀다가 한마디 하기를 "초록은 초록이고 빨강은 빨강이야." 엄마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선생님은 눈이 동그레지며 "아니 벌써 그 이치를 깨달다니."



씩씩이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 이야기 하나 - 나뭇잎은 무거워

나뭇잎이 떨어지는 10월.

상구(21개월, 남아)는 썩썩이에 오는 아침마다 작은 나뭇잎을 주워 가을을 느끼곤 했어요.

나뭇잎은 주로 자기 손바닥만한 은행잎이나 감나무잎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날은 길가에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기에 상구 엄마는 그중 하나를 주워서 상구에게 주었어요.

상구는 우와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잎을 받아들이더니 하는 말.

"나뭇잎, 아이 무거워!"

● 이야기 둘 - 보자기 사건

낮잠시간

아이들이 다들 자기가 자고 싶은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둘러보니 건식이가 미끄럼틀 밑에 누워 울고 있는 거예요.

수연이모 : 건식아! 왜 울고 있니?

건식 : 후-후-후-

수연이모 : 건식아, 왜 울어. 누가 때렸니?

건식 : 아니요, 보자기가 때렸어요.

수연이모 : 보자기??

건식 : 네, 보자기요.

그 보자기는 주먹, 가위, 보자기의 보자기랍니다.

● 이야기 셋 - 끝말잇기

어느날 하람이와 이모가 끝말잇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모 : 냉장고

하람 : 고, 고, 고추장

이모 : 장, 장, 장화

하람 : 화, 화가

이모 : 가람비

하람 : 비, 비, 비-

한참을 생각하던 하람이

"비, 비, 비내리는 호남산!"

● 이야기 넷 - 그 병규에 그 수호

병규와 수호가 영아실에서 벽돌 블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병규 : 수호야! 너 구십까지 셀 수 있어?

수호 : (당황해 하며) 아니.

병규 : 난 셀 수 있다.

수호 : 해 봐?

병규 : (자랑스럽게)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수호 : 또야!!!

잠시 후 이모가 수호에게 물었다.

이모 : 수호야! 너 구십까지 셀 수 있어?

수호 : (당당하고도, 씩씩하게) 네, 일이삼사 오육칠팔구십!

● 이야기 다섯 - 뜨빠이더맨

자유놀이 시간, 지영이모와 건식이가 침대 위에 앉아 O자로 시작하는 말맞추기를 하고 있었다.

건식 : 이모! '뜨'자로 시작하는 말 알아요?

지영이모 : 몰라.

건식 : 이모는 뜨빠이더맨(스파이더맨)도 몰라요?

지영이모 : ???

건식 : 그럼 '도'로 시작하는 말은요?

지영이모 : 몰라.

건식 : 도토바이(오토바이)도 몰라요?

지영이모 : ???

그렇게 해서 그날 지영이모는 겨우 한 문제(?)만을 가까스로 맞출 수 있었어요!!!

* 썩썩이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이모'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열/사/람/의/ 한/결/음/을 이/어/주/는 진보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는 이제까지의 정보화가 이윤추구의 시장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사회 내의 소통의 활성화와 연대의 정신'이라는 정보화의 의미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가 단지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소통의 공간이며 대안적인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비상업적인 독립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보적 사회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는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용을 기술적, 교육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보네트워크는 상업통신망에 산재 되어 있는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을 한데 모아 사회단체들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보다 쉽게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보네트워크는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진보네트워크 BBS접속방법은 01410, 01411로 접속후 [참세상]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jinbo.net>입니다.

월 3,300원 정액선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체험아이디]신청은

1. 이용안내의 9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전화 7744-551~2

진보네트워크 초기화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02-7744-551

- | | | |
|-------------|-----------|------------|
| 1. 이용안내/가입 | 2. 초보자마당 | 3. 전자우편 |
| 4. 대화방/전자회의 | 5. 인터넷서비스 | 6. 다른통신망접속 |

- | [참여마당] | [모임마당] | [정보마당] |
|------------|------------|-------------|
| 11. 플라자 | 21. 사회단체포럼 | 31. 정보센터 |
| 12. 속보게시판 | 22. 이용자동호회 | 32. 사회운동정보 |
| 13. 단체알림판 | 23. 이용자게시판 | 33. 공개자료실 |
| 14. 기획/이벤트 | | 34. 인터넷뉴스그룹 |

사/려/결/고 열/정/적/인 담/신/이 세/상/을 바/꿈/니/다

44. 노동네트워크 55. 학생네트워크

- ◆ Hot Issue! { 77. '98 노동미디어 특별 게시판
- 88. 양심수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세계인권지지 100만인서명
- ◆ 99. JINBONET 함께 만들기

선택(메뉴) 도움말(H.?) 이동(GO) 재접속(LOG) 끝내기(X.BYE)
초기화면))

찾아가시는 방법 -<http://www.jinbo.net>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
에서 자신의
소원이 욕심
이 될 수 있
다는 생각,
갖고 싶어
고집피우는
저너머에
욕심을 줄여
볼까하는 갈
등의 작은
싸움을 찾아 낼
수 있기를....

위양자
본회 전 부회장

며 칠전 내린 눈으로 작은 눈이 만들어다 놓은 눈사람이 이틀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틀째 아침만 해도 목도리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는데 저녁 나절 커튼을 치다보니 나뭇가지들과 작은 돌 몇개만이 물에 젖은 모자와 목도리를 지키고 남아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싸하는 느낌이었습니 다. 순간 가슴이 싸하는 느낌이었습니 다. 마치 그 풀이 영혼이 떠나고 육체마저 사라져버린 인간의 모습은 아닐까, 올 겨울 우리 앞에 이런 허망한 일은 다시 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날은 점점 추워지는 데 어떻게들 지내는 지 걱정 반 그리움 반이네요. 소식지를 통해서 누가 결혼을 했고 누구는 아이를 낳았고 또 서울보육교사회가 창립을 했고, 등등 많은 반가운 소식을 접하지만 역시 사람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처음 간 모임에서 우리 보육교사회 식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구요.

이디에서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특히 보육교사회 회원들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하는 믿음이 확인되서 그럴까요.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지요. 그래서 더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사람들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벌써부터 멜로디카드 한장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커서 산타할아버지가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받고 싶은 선물을 직접 말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예수님 생일의 의미를 알거나 하나?' 그동안 교회를 몇년 다니기는 했는데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추석 때나 차례 지낼 때 절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뭘 하라는 소리는 안해주는지 안하던 것 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가끔씩 떡도 나누어 주기는 하는데 아이들 시기에 종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적은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시기의 관심과 생활속에서 막연하게나마 가질 수 있는, 나만 더 사랑 받고 싶지만 나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깨닫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아가 그런 분이시기에 나자신이나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불편한 것을 하면 혼내주시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어쩌면 자연이기도 하고 인간의 공동선이기도 한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를, 잘못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무조건 용서해주는 분이 아니라 혼내주는 분이 라는, 이기적인 어른들에 의해 숨겨진 참모습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인간의 권리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섭리로, 한참 커 가는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의 소원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싶어 고집 피우는 저 너머에 욕심을 줄여볼까하는 갈등의 작은 싸움을 찾아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보육교사회가 마음먹은 인권보육이라는 나침반! 다양한 방향과 상황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21세기의 주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그리 즐겁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지지도 않는 소중한 존재로 서로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안의 온기로 다시금 희망을 꿈꾸는 1999년을 기대합니다.



다시 시작하며

이선미 · 서울, 서부교육교사회 회원

실로 오랜만에 드는 펜이다.

아이를 갖고나서는 많은 일들을 뒤로 미룬 채 직장과 집만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부른 배를 안고 퇴근할 때 기체조교실에 틀러 앉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을 갖고 열심히 체조를 한 것만 빼면 내 생활은 직장과 집으로 축소되었었다. 어느 엄마와 같이 나도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보다 백배 천배나 더 큰 기쁨을 주는 나의 아이를 낳았다.

처음 나의 볼에 달았던 내 아이의 감촉은 더없이 고왔고 그 순간, 이전의 고통은 잠시 잊을 수 있었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며 나처럼 나를 낳으셨을 친정엄마에게 고마움과 죄송스런 마음을 느꼈다.

두달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어린이집의 생활은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지만 내게 느껴지는 것은 사뭇 달랐다. 직장을 다니며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가는 엄마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엄마와 떨어져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내 아이를 낳고 기르고, 나 또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전쟁 치르듯 나와 친정집에 틀러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여 힘든 하루를 지낸 후, 곧바로 친정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 벌써 10시 밀린 집안일을 마치면 12시다. 그제서야 아 하루가 다 갔구나 하며 잠을 청한다.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된 것이다.

이전에 어린이집 교사로서 직장을 가진 엄마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벅찬 것이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미안해진다. 아이들에게도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던 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말로만 운운하며 지냈던 많은 날들이 참 부끄러웠다. 내가 경험을 하고서야 그 아픔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본다. 한가정, 한가정의 지지자로서 아이들 생활의 동반자와 조력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다시금 자각한다.

지금 나는 아이들이 더욱 더 가까이 느껴진다. 내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런가보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다시 어린이집에 나가니 아이들은 이전처럼 나를 반겨주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다. 그 모습이 섬뜩하면서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역시 아이들이구나 생각하며 며칠을 지내니 이젠 "선생님"하며 달려와 안긴다. 몇 년동안 보육교사를 하며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 느슨해졌던 모습을 반성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나의 아이들에게 해맑은 웃음을 주고 싶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선다. 이전보다 좀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천사들을 만나러 간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 듯 나도 자라리라 굳게 믿으며.

알림

새로운 시각의 성교육
When I'm Grown 프로그램 워크숍

경제위기의 심화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가고 청소년의 성적위험행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교육으로서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애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미국 CPOX(Center for Population Option)에서 개발한 단계별 인생설계교육 중 취학전 연령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When I'm Grown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교육현장에 제시 선생님들께 보급하고자 합니다.

When I'm Grown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사춘기와 성장기를 성공적이며 충만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교육과 직업교육을 결합해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1998년 12월21일~22일 오전 9시30분~오후5시

장 소 : 여성사회교육원 교육장(장충동)

주 최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대 상 : 유치반~초등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나 공부방 실무자, 보육시설 취학전연령담당교사

참 가 비 : 50,000원(교재 및 점심식사 포함)

신청방법 : 참가비를 온라인으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 하나은행 064-010193-12-201 예금주 이선주

문 의 : 이선주(☎ 02-268-3954)

※ 참가신청은 12월 17일까지입니다.

※ 여성사회교육원 교육장은 지하철 3호선 등대입구/ 2.5호선 등대문문 등장역에서 5분거리입니다.

첫째날(21일/월)		둘째날(22일/화)	
9시30분	접 수		
10시~12시	[1강] ◆When I'm Grown 프로그램 소개와 교사의 자세 -강사: 유정은	[4강] ◆4장 가족 ◆5장 미래를 보자 -강사: 유정은	
12시~1시	점 심 식 사		
1시~3시	[2강] ◆1장 나에 관한 모든것 ◆2장 기본적인 기술 -강사: 조인숙	[5강] ◆7장 함께 살아가기 ◆8장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강사: 김은옥	
3시~3시30분	휴 식 시 간		
3시30분~5시	[3강] ◆3장 성과 고정관념 -강사: 이선주	[6강] ◆6장 우리자신 돌보기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강사: 조인숙	

보육계 풍향

■ 놀이학습 강습회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이 재치있고 재미있는 놀이학습으로 보다 나은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강습회를 개최한다.

일 시 : 1998년 12월 29일~30일

장 소 : 어린이회관 문화교류실

강 사 : 가다가와사다오(일본 도쿄도 아동회관 어린이 지도감사) 교육비 : 5만원

문 의 : 02-204-6028

■ 아이 마음 예능발표회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동심문화실이 어머니와 유아,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예능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 1998년 12월 17일 오후 3시

장 소 : 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무료)

문의 : 02-204-6028

■ 새랑구미랑 창의성 겨울교실

새랑구미랑 창의성개발연구소가 겨울행사로 '새랑구미랑 창의성 겨울교실'을 마련한다. 팽이치기, 연날리기, 떡매쳐서 떡 만들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내공간에서 멀티시스템을 통한 창의력 개발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기 간 : 1998년 12월 10일 - 1999년 1월 말까지

장 소 : 용인 새랑구미랑 창의성개발교육연구소

참가비 : 6천원(중식포함)

문 의 : 0335-339-2993~5

■ '99년도 신학년도 대비 유아실기 체육놀이 중점연수

YMCA사회교육부에서는 '99학년도 신학기를 대비하여 새로운 내용의 체육놀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관심이 있는 교사나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수 내용 : 새로운 손유희, 자율적인 신체표현, 창작무용, 기본체조

연수 일시 : 12월 12일(토) 오후 3시~6시

연수 장소 : 서울 YMCA대강당 2층

참가비 : 1만 5천원

접수방법 : 당일 접수

문의전화 : 732-8757, 391-9451(야간)

보육계 풍향

■ 제9회 놀이배움터

어린이에게 건강한 놀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놀이배움터에서는 놀이지도 경험이 없거나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주제를 '놀이 첫 걸음'으로 정했습니다.

일 시 : 1999년 1월 18일(월)~19일(화) 9시 30분 ~ 오후 5시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참가비 : 25,000원

내 용 : - 기본놀이

- 땅에 그리고 하는 놀이

- 패놀이

- 감감술래

- 놀이캠프

- 대동놀이

문의처 : 놀이연구회 놀 02-686-2951, 호출기 012-1140-5209

■ 엄마가 실천하는 유아교육

가정유치원(참지사/10,000원)

회원 10% 할인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북 [가정유치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가정유치원을 하려는 이유와 필요성, 부모가 갖추어야 할 자질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2장은 엄마 혼자서 또는 이웃과 함께 가정유치원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3장은 가정유치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싼 교구교재 없이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활동과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활동 그리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가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사랑유치원]과 [책마을 유치원]의 운영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은 가정유치원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한데 모아 여러군데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했다.

보육계 풍향

목차

제1장

가정유치원을 시작하기 전에

1. 왜 유치원을 보내는가?
2. 반드시 유치원에 보내야만 하는가?
3. 왜 엄마가 직접가르치려고 하는가?
4. 나는 가정유치원을 잘 할 수 있을까?
5. 가정유치원에서 성공하려면
6.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제2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1. 엄마와 돌이 하는 유치원
2. 이웃과 함께 하는 유치원

제3장

생활속에서 찾는 놀이

1. 놀잇감의 다양한 활용
2. 몸을 이용한 놀이
3. 음식을 이용한 놀이
4. 나들이
5. 자연과 친해지는 놀이
6. 생활용품을 이용한 놀이
7. 발달을 돕는 놀이

제4장

실천사례 살펴보기

1. 엄마사랑유치원
2. 책마을 유치원

제5장

도움이 되는 자료 몇 가지

1. 그림책
2. 아이와 함께하는 나들이
3. 우리동네 도서관
4. 장난감 대여점
5. 텃밭가꾸기

소식과 소식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본회는 11월 27일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흥사단강당에서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보육교사, 보육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희연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1.보육사업의 재개념화와 정책적 개혁방안(정병호 한양대문화인류학과 교수, 공동육아연구원 공동대표) 2.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 개선 방안(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보육사업의 행정지원체계 개선 방안(허순천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현황과 과제(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5.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박금희안산보육정보센터 보육지도원) 6.여성복지적 측면에서 본 보육과 어린이의 인권(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의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사)시민운동지원기금의 기금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보육관련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총회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총회가 11월 28일 5시 여성사회연구원 강당에서 회원, 축하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식전행사 노래배우기로 막을 올려, 김진숙선생님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오윤정선생님을 초대회장으로 김진숙, 박영미, 이윤경선생님을 부회장으로 선출하

였고, 사업계획과 예산인준은 운영위로 위임하였다.

□ 양성평등적 자녀양육 세미나

지난 11월9일 천주교 종로교회 강당에서는 (사)한국여성전화연합회 주최로 [양성평등적 자녀양육 세미나]가 있었다.

성평등교육 사례 공모에서 당선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서강대 정유성교수의 기초발제가 있었다. 우리 회의 회원인 조선경님(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이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몇가지 제언이란 제목으로 토론자로 참가하여 「성차별의 문제의 뿌리가 깊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모든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성평등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강남여중 교사이신 백신영애님과 여성학자 여난영님이 참가하셨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당선된 분들은 자신의 자녀양육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힌 것에 대해 "평범하다고 생각한 양육방식이 우수사례로 뽑힐 만큼 우리사회에서 성평등교육이 부재하고 있음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박물관 활용교육 강좌실시.-한국보육정보연구소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우리 문화유산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교육을 시도하고자 지난 10월 17일부터 4회에 걸쳐 [박물관 활용교육 강좌]를 실시하였다.

일회적인 야외학습으로서의 박물관 견학이

소식과 소식

아닌 예술교육과 과학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강연에 이어 마지막 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직접 견학하여 관계자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람들

진학을 축하합니다.

서울 오운정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소 서정은선생님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대학원, 광주 김수중선생님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수중선생님은 서울로 유학을 오는 까닭에 일자리가 필요하데요, 아르바이트자리가 있으면 중앙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원장이 되었습니다.

정책개발위원 삼전경선생님이 금천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외비를 내셨습니다.

(98년 10월 31일~12월 4일 현재)

<정회원>

98년 6월

서울 : 김미선

부산 : 박경미

98년 7월

서울 : 박영미, 김미선, 민은홍, 진경선,

신현희

부산 : 박경미, 한혜원, 김영수

98년 8월

서울 : 박영미, 김미선, 민은홍, 진경선,

신현희

부산 : 김지현, 김명선, 김혜원

98년 9월

서울 : 박영미, 박혜영, 추영, 이선미, 김미

선, 민은홍, 진경선, 신현희

부산 : 김경혜

98년 10월

서울 : 박영미, 박혜영, 추영, 이선미,

김미선, 민은홍, 진경선, 신현희

부산 : 윤현진, 김옥정, 박희순, 이미애

김지현(사상지회)

98년 11월

서울 : 박인해, 김수연, 이경녀, 주혜민,

박영미, 박혜영, 추영, 이윤경, 김미선,

진경선, 신현희, 황미혜, 황호정

경기 : 이기원, 이주영, 강영신, 전경숙,

지연, 윤금주, 이기종

부산 : 김희정, 박찬주, 김효정, 한혜정,

최정임

기타 : 정희연, 서은희, 최순옥, 박정애,

이선주

98년 12월

서울 : 진경선

소식과 소식

부산 : 박찬주, 김효정, 한혜정, 최정임

후원해주셨습니다.

전북-김난희(5천원)

<법인기금 내주셨습니다>

일본 - 변미영(3만원)

서울 - 신현희(2만원)

안산 - 전영갑(5만원)

수원 - 강영신(2만원)-지난 달 누락

경기 - 남향숙(3만원)-지난 달 누락

부산 - 지정희(10만원),

아기자람터 교사일동(10만원)

연구소 성지혜(5만원)

본회 11월 활동일지

- 3 집행위 회의
- 4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 6 집행위 회의
- 9 서울지부준비위원회 회의
- 10 여연 비상 이사회
- 13 여연 '복지학교'
- 17 집행위 회의
- 19 실업극복국민운동 약정식
- 23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접수참구
1차 회의
-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
- 25 서울지부준비위원회 회의
- 27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 28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총회





편집부에서

● 편집부에서

어느새 한해가 접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살기 어려울때 우리 회원님들 무고 하신지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도 한해는 가고있네요.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까운 이들에게 카드한장 보내봄이 어떨까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사무실이 무척 바쁘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에 본회가 제출한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사업이 선정되어 무료보육을 원하는 실직가정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언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방과후 생활지도 보조교사'도 본회가 서울의 몇개 구를 맡게되어 정신없이 분주하네요. 일은 많아서 좋지만(?)행여 본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되지만... 걱정마세요. 열심히 하고있답니다.

● 소식지가 많이 늦었네요.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사업, 공공근로사업, 인권보존회가 겹치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소식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세요.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 박동수, 구지운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하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현재 정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교사를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천리안 GO BABY

하이텔 GO BEBO

유니텔 GO BEBO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 FAX. 02)271-1548 ID KDIRC(천리안)